


# 念佛普勸文

部	子部
類	釋家類
番号	3-248
冊数	1-1

162  
25  
1

162-25 

部	子部
類	釋家類
番号	25
冊数	1
備考	

표지 뒷면



念佛普勸文

諸佛不如阿彌陀佛

諸經釋迦佛云三千諸佛中西方阿彌陀佛第一尊佛又十方諸世界諸佛皆讚云阿彌陀佛第一是故經云末世若善男子善女人得聞阿彌陀佛名號十聲念誦者雖造極惡重罪能免地獄之重苦當生九品之蓮臺咸皆成佛故猶勝於諸佛也

모든 부테타불만자모승타승사니라

제경에 서가 부테님이느오사 뒤삼터 불공이 석방아미 타불이 옥음미라 후는 오로 제게 모든 부테님도 타 아미타불은 옥음미라 후는 사니 그러므로 불공이 석방아미

말씨 남지나 퇴인이니 아이타 불일호를이 더듯고 열면  
니나싱각항야념항면비록곤죄를만허항야셔오반드  
시디옥을면항고등각해게가쉬다부테되리라항시니  
고로셔방아미라불이웃등미라항시니라

念諸佛不如念阿彌陀佛

大集經云末世之人廣念十方諸佛則心亂不定故偏護  
專念西方阿彌陀佛乃至行住坐卧三七日中阿彌陀佛稱  
念不忘則命終後當生極樂大悲經云若世人晝夜一日  
稱念阿彌陀佛勤思不忘又勸他人轉傳相勸則同生西  
方十六觀經云若人雖造極惡重罪命終時幸值有識道  
僧教令念佛其人信聽稱念阿彌陀佛十聲則重罪皆能

一今愛伏為 七父都仁伯兩主 金奉近兩主

消滅不入地獄卽生西方四十八願阿彌陀佛云若諸世  
界有情之人念我名號十聲則此身死後皆生我國不然  
則我不成佛又經云得聞陀佛名心生歡喜則臨命終時  
阿彌陀佛與諸菩薩引道於西方又佛言若善男善女一  
日二日三日四日五六月七日中志心念阿彌陀佛名十誦  
則卽生西方永絕生死決定成佛又女人念佛則轉女成  
男往生極樂卽成佛果

모든 부테을 념하미라 불만 못하디 하시니라

대집경에나로샤디말시사름이부테을만히념하면  
옴이어즈러워외오지못하디그러므로다모아이라불  
만생각하라하고또닐으샤저안즈나누으나삼칠일중

에야미라불을일명함을부디리노와오고노와리노스름을됨  
불충라권충면충가지로셔방의간다충시키고쇼십육판  
경의이로사되야모사름이라노비록관죄을만히지어  
도고사름이유복충야셔범마다됨됨을면충면충방  
의가라충시키고쇼주클셔에불범야니중을만나됨불충  
라충야픈그말을신충야뜻고니모야미라불을면충충  
면다우의를죄를면충고바로쿠니셔게로간다충시키고  
쇼십팔위에야미타불이이로사되시방제제남적  
나녀인니나야모사름이라노내일충을얼번이나됨충  
면다내국충에나리라충시키고쇼경에닐우사되야모사  
름이라도야미타불일충을이더뜻고모모새즐거충면

布敬

起和

다 후성애, 서방의 간다, 하시고 또 부레님이 날으샤 되, 흘  
리나 잇트리나 사흐리나, 맛와나, 경성으로 나무아미타  
불중면주글, 예에아미타불과, 관음보살리, 스구나, 세게  
로드러가리라, 하시나라, 도닐오샤, 되녀인, 이년, 불중면  
테보롬, 벗고남, 지되야, 구나, 세게가, 서부레, 되리라, 하시  
나라

諸國世界不如西方極樂世界

大阿彌陀經云阿彌陀佛所居國土名極樂正在西方其  
國黃金白銀琉璃水晶珊瑚琥珀磔磔七寶爲地廣明甚  
好萬衆寶物自然合會常和中適甚快無比無春夏秋冬  
大小寒大小熱亦無地獄高山大小海江水亦無陋人女

人惡人禽獸惟會諸佛諸菩薩及諸善人皆相敬愛如兄  
若弟自知前世後世諸事衣食自然化生又諸國人民生  
阿彌陀佛國者七寶池蓮花中化生亦無乳養諸天人萬  
般伎樂衆寶衣食各持下來爲阿彌陀佛供養作禮又供  
諸人日日無窮亦無衆苦具受諸樂永絕生死心開意明  
乘其七寶宮殿飛行自在天地間遠近等事能通能知快  
樂無比盡願往生佛言阿彌陀佛功德國土快善不可盡  
說我畧爲諸人小說之耳

모든 법이 구나만 가지 못하사다

대아미타경에 석가부러님이 날오사되야미타불前位  
국기니하시느니라 석가부러님이 날오사되야미타불前位



美天節伏為 亡夫金重拜

머되가고거<sup>고</sup>면잠간<sup>중</sup>하고시키고그국은황금파온파뉴  
리와슈녕파마노와산호파호박파칠보로<sup>선</sup>사히되었  
고너르고받고만가지보<sup>부</sup>전로삼겨심히조<sup>하</sup>전즐의  
업고<sup>보</sup>봄과여름과<sup>를</sup>과겨을과대한쇼한대일조열  
다업고다옥과산과바닷물강을다업고사모라운사람  
과녀인과증싱<sup>등</sup>이다업고부테와보살과어진사람만  
모화나시며전성후싱<sup>스</sup>를다알고웃과밤과권노삼기  
덕모든하늘사람이만가지웃과음식과풍<sup>뉴</sup>와가지고  
스려와야미타불과보살과그국사람으게공양<sup>하</sup>고가  
면도다른하늘사람미와선공양<sup>하</sup>고풍<sup>뉴</sup>하<sup>고</sup>가면도  
그리<sup>하</sup>기를날마다굿질제업고<sup>도</sup>나사람이주거<sup>영</sup>호

니극낙체계에나면탈보모서년화공으로사름이되어  
 나섯섯도먹지아니하고질노크고한고모업고즐거오  
 은만만하고도극낙체계간사름은주그며살기도업고  
 마음이불가련지간한물을다알고칠보궁년을두프랑  
 라돈니고조코즐거워천줄의업거를엇지피로온세계  
 을람공고적극낙체계를가고취발원을아니하고부  
 테님이날오사덕아마다불공덕과극낙체계조호문다  
 니르지못홀다하시나라너부테님말씀을약간써내야  
 알게하고극낙체계로참가지로가게지극권하나다  
 極樂世界七寶池中有九品蓮花臺 上三品 中三  
 品 下三品是為九品也

張漢真

黃日行觀淨

無量壽經云上三品往生者若有人能通佛經具持戒行  
不貪世事能行萬善人願生彼國則命終時阿彌陀佛與  
諸聖眾來迎一彈指間引導極樂入蓮花中過三日後以  
蓮胎為身而出則三十二相身具足即聞說法生死永  
絕心通意明即成佛果神通自在萬事能通豈不快哉是  
為上三品往生者也

극낙세계에 아홉품된 곳작다이니

상삼품 중삼품 하삼품

우량유경에닐우샤되 상삼품에가쳐나는 자는 아모사  
름이라도 불공을 등히알고계범도행우고씩간람심도  
아니우고보시선스을만만히우스아름이극낙세계가

고적하면 그 사공이 등명이 다 하쳐 죽을 때에 아미타불  
 이 모든 보살을 등리고 와서 그 사공의 영혼을 등리고 잠  
 간 사람이 극낙혜리가 쳐년 곳 봉이 예 들어 나사 가 년 곳  
 츠로 사공이 되어 사흘 만에 년 곳 타 피 면 나사 아미타 불  
 설법을 들으고 죽기 부테 되면 살며 죽기도 다면 후고 신 통  
 지간 나만 안 후고 전 생 후 생 일 파 천 디 간 만 을 을 다 면 기  
 케 안 다 후 시 나 라。 天地廣大一身難莊切

中三品

經云中三品往生者僧與俗大小之人雖不通經信聽佛  
 經孝養父母若干持戒不得殺生或為仁慈布施心之談  
 願欲生彼國命終時阿彌陀佛與諸聖眾來迎一念之頃

全奉丹 下得福

朴小化

卽生西方極樂國入蓮花中以蓮胎爲身兩過七日後蓮  
花乃開出之則身形金色生死之苦永絕聞佛說法卽成  
佛果六通自在快樂無比

중삼품

경에닐오샤된중삼품에가나노사름은중삼나후이나  
년이나바루불경을아지못하나불법을신중야드고  
부모호양중가나슬고기를노간긋터거나살싱도가나  
후고세간탐심도적게후보시년수슬노간후면셔재  
모음에구나셔게로가고적후면주글셔에아미라블이  
관음보살등을드리고와그사름의영호를드리시고잠  
간사이여구나셔게가셔릴모못가온머년화꽃츠로몸

이 되어 있다 가 알 이 날 다 이 바야 이 본 이 곳 이 치 이 면 이 사 이 례 이 다 이 서  
아미타불 이 심 이 머 이 부 이 들 이 고 이 즉 이 사 이 부 이 데 이 되 이 면 이 살 이 머 이 주 이 고 이 머 이 벗 이 들  
며 이 초 이 고 이 고 이 도 이 다 이 면 이 고 이 고 이 전 이 후 이 세 이 날 이 파 이 만 이 들 이 을 이 다 이 알 이 고  
신 이 통 이 지 이 간 이 도 이 만 이 만 이 무 이 중 이 다 이 하 이 시 이 니 이 잇 이 지 이 사 이 례 이 가 이 고 이 처  
아 이 니 이 고 이 고

下三品

經云下三品往生者若諸世界男女諸人平生不為一善  
多造眾惡每日晨朝十念阿彌陀佛名及命終時幸值有  
識道僧教令念佛信聽念南無阿彌陀佛十聲願生彼國  
則命欲終時化佛化菩薩來接須臾之間引魂於極樂七  
寶地蓮花之中以蓮苞為身過七七日蓮花乃敷人形具

是聞佛說法。免生死苦。卽成佛身。萬事能通。衣食隨念。現前。

하삼품

경에닐오샤되。하삼품에가쉬나는자는이구쉬게에남  
진나녀인니나。아모사름이라도현스을호나소아니하  
고약스을만만하하의도날마다세베。나무아미타불을  
번을호거나。또주글써예유복호야불법아닌공의만다  
쉬념불호타호야든그말을신호야듯고나。무아미타불  
을호면호을호면아미타불과관음보살등의있다공의을  
두리고。잠간구부쉬게가쉬변화공부이에늘어칠천일  
을있다가변호호로사람이되어나면몸이조코아미타

불심법을 들었고 주시부 데 되어 방 들며 주신고 모도 다면  
고고 권성 후성 일을 다 안다 하시고 옥과 밤도 질노 삼긴  
다 하시니라

勸他念佛同生西方

賢護經云有人將持億萬財寶普施諸菩薩諸衆生則其  
得福亦雖無量又不如有人勸令稱念一聲阿彌陀佛功  
德大慈菩薩云勸二人念佛則比於自己念佛又勸十餘  
人則福德無量若人燈燭供養阿彌陀佛則諸佛歡喜命  
終生於極樂徹見十方世界法華經云一稱南無佛者皆  
以成佛道

다른사 음을 들을라 권하 면하 가지 로 구 나 하 기



다하시니라

현호경에닐오샤뒤사람이지보을만만히가져모든부  
테보살과신모든사람오게보시을만만히하면고어든  
부덕기비루만만하야도다른사람을관하야호빈나부  
아미타불은공만가지못하디하시고저대조보살리닐  
오뒤두사람을테불라권하면저는님불아니하야도  
하나다극지아니하고열사람을관하면부덕기만타하  
시니고로경에닐오샤뒤아모사람이라도아미타불을  
위하야약간불쳐고공양하면모든부테다즐거하코그  
사람이주거극낙혜게가셔나면모든혜게일을다안다  
하시고법화경에닐오샤뒤호빈나부불은신자신다불

三言曰。言曰。言曰。言曰。言曰。言曰。

有緣奉佛無緣毀佛

經云。今世大毀佛法者。前世來積惡而無善緣。故至于今生亦不奉佛法。若見崇佛人。則大笑毀破。經云。毀謗佛法。則入地獄。而不可出世。有識善人。自雖不奉。不可毀之。奉佛者。入聖道之因。毀佛者。入地獄之本。於戲末世僧也。俗也不肯修心。修道貪求世間物慾。故入地獄者。居多。徃西方者。居小。豈不寒心哉。有智達人。通以知之。所謂冥間十王。下怕尊貴之嚴。不無地獄之事也。思以慎之。

불법인이나시면 위고입스면 환다하시니라  
경에 린오사되 이심에 불법을 해호는 사람은 권심에 악

스안고현소는 아니요고로해고불법고인사람을  
보면은은니불법나쁜죄로다우의근다하시니실도  
위티아니나해티마로소쉬슬픈지라말세연후이나후  
이나현소를아니고세한만탐하시니고로다우를차  
는만고고나갈자는적고니엇지슬프지아니고어  
진사람은통히알라시왕은놈품사람도무쉬위아니고  
시고디우도거긋것시아니라하시니싱각하시보시소  
有信有益無信無益

大華嚴經云信心能成佛道法華經云有信心人說佛法  
無信人前莫說佛法說之則不信毀佛罪必入地獄永無  
出期故云深信自心是真佛心外求佛是外道也有智善

人時時心向西方而念隨佛所謂念佛人鬼神不能害十  
王不敢召信聽佛語佛不虛言也

신심이 나시면 나하고 입스면 나티 못하며

대화엄경에 날오샤되 신심이 나시면 불토을 인도하셔  
고법화경에 날오샤되 신심이 잇노사름은 계불법을 나  
르고 입거든 나르디 말나하고 시고 나르면 불범나 무래죄  
로디으의 드러나지 못하다 하시니 경에 날오샤되 사름  
마다 제모음이 실도부테니 모음백귀부테를 추즈면 외  
도라하시니 어진사름은 사시에 모음애 서방을 보래야  
아미타불을 생각하쇼셔 녀름불하노사름은 귀신도 보치  
지 못하코시 왕도 자바가지 못하다 하시니 부테니 말승

河淨信兩主

을신구야드르시소부테남은현말승을아니고신구  
시니라<sup>○</sup>부처의교도신구신구신구신구신구신구신구

貪世事人不知念佛大樂

經云慳貪造惡者後入地獄而受大苦行孝布施者後生  
人道而受富貴仁善念佛者當生極樂而成佛果惟斯末  
運深知者小而淺識者多故皆謂佛法多虛衣食具足為  
上嗚呼人生一世能幾畱乎朝存夕亡剎那異世如高峯  
之片雲水上之浮漚也慳貪世事枉作千年之生計造惡  
無窮不修後世之善道豈不寒心哉又世人皆謂此國土  
樂處比於西方之樂處百分之中亦不及一分也完在諸  
經不可不信若為臣者信聽王言為子者信聽父訓若未

信聽則豈可名爲忠孝者哉蓋佛爲三界之大導師人天  
之人無非佛弟子也何人不隨喜何不願往生古人云念  
佛亦不妨一切俗事故在官不妨職業在士不妨修讀在  
商賈不妨販賣在農人不妨耕種在僧不妨禪誦凡一切  
所爲皆不相妨故雖殺牛屠馬之人念佛十聲而往西方  
不難那先經云國王問那先道僧言世人平生作惡命終  
時十念南無阿彌陀佛死生西方我不信是言那先答云  
比如大石載船則因舟力故不沒故經云人雖極惡一時  
念佛則能覓地獄直往西方又所謂自力他力或行諸善  
而欲成佛者是自力如種樹作船越海成佛遲也或爲  
念佛而成佛者是他力如借船越海成佛速也故經云三

千兩布施之功又不如一念隨佛之功也信聽佛語大抵此冊文出經論諸人皆可通見不可疑心雖食酒肉之人一念隨佛則消灾厄增福壽閑遊時看此文而後高在淨處莫以淺踏念佛萬事雖行之時亦可思而念之

혜스탐하느사름은념불하야크게즐거온주를아지 못하나다하시니라

취경에닐오샤되악스파탐심과하느자느후에디우에 드리고상을슈하교호도와보시과하느자느다시사름 미되야부귀하교어딜고념불하느자느쿠낙국의가셔 부테된다하시니라이말세어어딘이적고악자만하노로불법을다하스라하교사간이만하면웃음이라하느

니를 혼지라 사람이 일머오랜고 아취기닛다 가나 취주  
그니 맛티를 우희 겁품스고 놉흔 붓의 자근 구름스흐인  
성을 세간 만탐하야 천년이나 살야 하며 악죄 만히 하고  
호섯를 닦디 아니하스니 실로 슬푸다 또 사람이 다닐오  
디이 국을 좃타 하거니와 국나국에 닌 빙븐에 흐본도 못스  
하다 하야 제경에 날리시니 신채 아니미 올치 아나 하니  
라 신히 닌 닌금의 말슴을 들트고 스식 온아 뷔말을 들르니  
뜻디 아니면 충신 효치 아니라 하시니 부테 닌은 천상인  
간애 옷등스승이라 인간 텨 샹 사람이 부테 닌테스 아나  
니 업스니 어니 사람이 불법을 표하아 니며 잇치 국나세  
계가 고적아 나하리요 또 닌오티 텨 불은 저리나 모오리



나대도후라하시니, 고로비슬후는이나, 클후는선부나  
님불후기올타하시고, 쏜장시나, 여롬진노사롬이나, 등  
파가스나, 아모사롬이라도, 님불후미올타하시니, 고러  
모로소, 파몬, 파잡던사롬도, 님불, 열번을후, 고쿠, 낙, 헤기  
가다, 후시, 니라, 나, 선경, 에, 국, 왕, 이, 나, 선, 도, 승, 등, 려, 무, 러, 닐  
오리, 장, 죄, 만, 호, 사, 롬, 이, 주, 글, 썬, 예, 나, 무, 아, 미, 타, 불, 열, 번  
후, 면, 다, 우, 을, 면, 고, 썬, 방, 의, 간, 다, 후, 노, 말, 을, 고, 디, 듯, 지, 못, 후  
노라, 후, 시, 니, 나, 선, 도, 승, 이, 다, 답, 호, 되, 권, 돌, 이, 라, 도, 비, 예, 시  
르, 면, 바, 덕, 에, 썬, 지, 디, 아, 니, 후, 니, 쿠, 히, 사, 모, 라, 온, 사, 롬, 도, 님  
불, 후, 면, 아, 미, 타, 불, 덕, 문, 에, 다, 우, 을, 면, 고, 썬, 방, 간, 다, 후, 시, 나  
의, 심, 마, 르, 소, 썬, 노, 닐, 오, 리, 호, 양, 파, 화, 류, 파, 보, 시, 선, 소, 후, 아

善書勅文

十一

부테되기 더디면 남글 심겨고 거든 버히 비를 무어 등고  
바단물 건너 미갓흐니 부테되기 더디고 념 불응야 부테  
도기 습기 느 비름 비러 등고 바단물 건너 미갓트니 부테  
도기 습다흐시니 고로 삼천냥을 보시호야 도약 간 나무  
아미타 불응공만 굿디 못하다흐시니 라 부테 님 말숨을  
신호야 드르시소도 이척을 인간 사롬을 대도 보게호되  
다의 심마로 호셔도 슬고 기를 굿티기 습 거든 고티고 념  
불응면 부테되기 습다흐시고도 비록 슬고 기를 굿치자  
못응야도 념 불응면 지익은 면호고 북과 목숨미만 타호  
시니 라 호 일도 업고 놀새 예손과 남과 샷고 이척을 정성  
으로 보고 본 후에 조흔타 언저 두고도 념 불응기 를 가지

念淨

가지일을출세에오호라하시니라

此上諸經論文畧抄要覽普勸諸人以下大彌陀懺文  
昔日念佛往西方十人傳記一字不改專出寫示以該  
字兼出解釋又勸諸人念佛

이우호모든경에말씀을나간서니야님불호라권하  
고이아래논에귀귀님불호야극나간열사름의면귀  
을호호도곳치지아니호고서니야언문으로사겨너  
이모다님불호면이호호를알기권하되다

烏長國王見佛往生

往生傳云烏長國王萬機之暇謂群臣曰朕為人主不克  
生老病死無常之苦六道輪迴誰分貴賤聞西方佛國誓

願棲神於是日夜精勤念佛行道廣行普施利樂衆生每  
日誅一百僧齋王與后妃親手行食時請名僧咨問妙法  
三十餘年精專無替一日宮中見阿彌陀佛西方聖衆來  
迎祥瑞不一端坐示滅身色怡悅

왕성연에 날오디 오장국왕이 일만공승이 시다가 못신  
하러 날오디 나비성의 남공이 되어 시다 나셔 늘고며  
병드리주는고 모를면 치못하고 다옥들기는 귀하며 천  
후니 업스니 나쁘르니 처방아미타불국을 밍서야  
려하고 그날부터 낮밤 업시 텨 불하며 보시호 만만하야  
등심을 즐김게 하시고 날마다 중을 벗시 불너 대왕이 친  
히 음식을 주시고 날마다 도승을 천하야 불법을 무르시

고설촌하다. 마불도를 위하시다. 각론날대. 권중에서.  
아미타불을 보시니. 아미타불이 모든 보살을 지르고와  
서. 머왕과 머비를 두려가라. 출애고. 타불과 보살의 광  
명상. 쉬만안하시고. 머왕과 머비. 평안히 안자. 주거. 서방  
의가다하시니라.

世子童女勸母往生

法苑珠林云童女宋朝威世子梁郡人也父子三人俱修  
西方惟妻不修女年十四死後七日却廻啓母曰兒往西  
方父兄及已已有蓮花後當往生唯母獨無兒今暫故相  
報至後母依兒教日念陀佛盡得往生安養矣  
동비라하시니. 아히야마니. 님불관하시다.

범원추림의닐우되강남공주공고을관나히일홍은동  
비라적아바님과제형과적와는셔방아미타불을념호  
뒤그어마닌드틈불아나하더니동티나히얼리헤나셔  
주거셔방의갓다가일월날만애다시도라와셔그어마  
님헤아로되너쿠낙의가셔보니아바님과형님파나와  
드턴화꽃지니시니후에가면다시사름이되어나려니  
와임아님은년화꽃지엄삼해불너다시와셔아뢰되다  
하니그후에그어마니고절동네의말을듯고나무아미  
타불을나삼엄시틈하더니니히다쿠낙세계에가셔나  
다하시니라

隋文皇后

異番往生

李者根阿只

往生傳云隋文皇后雖居王宮深厭女質常誦阿彌陀佛  
至臨終時異香滿室從空而至文帝問闍提三藏是何祥  
瑞答曰西方有佛號阿彌陀佛皇后素高神生彼國况聖  
教分明無致疑矣

유문황제의대비향내내고셔방가시다

왕성전에닐오디유문황제의대비비록대궐중에게시  
나심히네몸을슬하야상해아미라불외오던나주그실  
췌에그특은향내대궐중에궐키나니대왕이불벼아  
는듯은려무로디엇더흔향내나고하신뒤대담하야  
스로뒤셔방애부테게시니일홍이아미라불이시니대  
비의념불공비하거룩하시매극낙국의가나시미로소

木

三

三

이 다경에 널오사지 념불후던사름은 주글하여 향내나  
고 석방의 간다하시니 대왕이의 심을 마르소서

京兆房者勸他往生

彌陀感應圖云唐方者京兆人暴死至陰府見閻羅王王  
曰據案簿君曾勸一老人念佛已生淨土故來相見者曰  
先許金剛經萬卷巡五臺未欲往生王曰誦經巡禮固為  
好事不如早生淨土王知意不可棄乃放還以此知勸人  
修者非徒往生又感動幽冥也

방재호늘근사름남불권고그방재도호가기로 석방  
가다하시다

미타감응도애나드오리후원구경도사름일흔미방재



라과글니주거셔시왕세가셔빈되왕이날오되그되권  
의흔들근사름을넘불후라권하니그사름이되되의말  
심을신후야듯고넘불후다가그의의문겨주거셔방의  
가시니그되도름을넘불권흔들이로크낙의갈쇠다흔  
대방재닐오되나느금강경외오고부테괴테비후를로  
하하고셔방가문도하야니후되다흔대시왕이날오되  
테비후며금강경외오마비루도흔일이나후낙의갈만  
곳지못하니라하시고그방재을다시안간으로노화보  
내시니일노셔보건머다른사름넘불후라권흔공덕요  
로크낙의갈분이야니라명간시왕이다아르시고그방  
자를블너보시니라하시다

學士張抗持課往生

往生傳云晉翰林學士張抗平生積善信種佛門誓課大悲心十萬遍願生西方課畢年過六十忽寢疾唯念阿彌陀佛謂家人曰西方淨土只在堂屋西間之內阿彌陀佛坐蓮花上翁兒在蓮花池金地上嬉戲言訖念佛而亡翁兒乃孫子名方三二歲而亡矣

할님벼슬조장항이천슈외오고셔방가다

왕성전에닐외되단나라할님벼슬하던장항이평성애  
에진일과불법을학면셔천슈거십만번을외오고구낙  
국의가고쳐하더니곳싸에나히비슈이지내야문드병  
드러아미타불념하다가장항이췌집사름드러닐오디

何妨于汝기내 짐서 된안 해아 비라 불이 번 환 곳 우 회 안  
자 배 시 고 용 이 는 탄 곳 금 무 우 희 논 다 하 고 그 말 무 고 텨  
불 동 다 가 주 다 용 이 는 장 항 의 손 스 일 흥 이 라 제 살 매 거  
죽 다 하 시 니 라

信士牧卿

執幡往生

往生傳云唐信士鄭牧卿滎陽人舉家奉佛母及姊妹同  
祈淨方至開元二十一年因疾困篤有醫人及同道者咸  
勸喻言且進魚肉以救羸軀痊復之後修持淨戒不亦可  
乎牧卿曰噫如此浮生縱因葷穢而得痊平終故磨滅不  
奉佛禁而惜微命何為確然不許遂嚴佛事手執幡  
爐一心稱念阿彌陀佛復作是言丈夫一心不退願生西

方奮然長往異香充庭隣里共知舅氏夢室池花駭見牧  
卿合掌趨上時當五十九十念往

淨菩提心淨菩提心高高妙妙法法的的加加多多

와성년엔날오뒤당나라어진양반일홈은淨菩提이니  
영양고을사람이라그집사람이다분법을위하고淨  
의아마님과아즈미파누의와호가지로석방淨菩提  
니淨菩提이병은리병이등호니의원파친호버지다와  
닐오뒤고기와마늘파다시머거몸이성코살지거몸고  
기파를다시그티고淨菩提기을호니라호머무淨이닐  
오뒤슬픈지라이거죽몸을비루고기마를과먹고병이  
조호들일매오래살쇼베고기을먹지아니호리라호고

번과 향을 잡고 나무아미타불 향명 섬닐 오직 극낙세  
계로 갈 여하고 주고 니 그 색에 귀 특 향 내 만히 나고 그  
무을 사 롬 이 다 알고 또 그 가 식 엄 의 생 에 목 정 이 보 여 날  
오 뒤 나 극 낙 세 계 간 노 라 향 니 나 히 원 아 흠 이 라 향 시 다  
불 제 파 향 향 응 춘 이 파 글 니 주 거 극 낙 가 다 향 시 다

링 엄 된 언 날 오 뒤 일 흠 은 응 춘 이 라 향 닌 중 이 성 도 사 사  
롬 이 라 향 이 도 야 이 시 더 향 실 이 엄 서 시 주 의 작 물 을 만  
만 히 먹 터 니 다 시 속 기 피 야 군 소 의 드 러 잇 사 가 보 전 사  
흠 에 주 그 물 무 셔 워 다 시 중 이 되 야 잇 터 니 파 글 니 주 거  
셔 사 왕 셔 재 퍼 가 니 사 왕 이 날 오 뒤 응 춘 이 지 옥 의 잘 나  
향 더 응 춘 이 소 리 를 그 계 향 약 날 오 뒤 를 다 옥 의 들 나

홀린머삼천죄불이다 천말성을하여 다내중되야  
신제판경을보니 부테님이 날오되 비록악죄만만하야  
도주글싸예 남우아미타불 일번을하면 더욱을면하고  
셔방의간 다닐디시나 나느 비록죄를다어 도오덕죄는  
아니하고 중되야 이 신제님을만나하야 시나나느다  
옥에드지아니하리라고 주사쿠나의가다하시니라

溫文靜妻辭親往生

왕성전에날오되 딴양싸사름일홈은 온문정이라 그안  
히병드러미양누어시니 그지아비 작터주려닐오되 엇  
지싸헤미양누어셔님불도아니하느고 호대그테닐오  
키엇턴부테를님을호호대그지아비날오되 아미타불

甘露沙里 李德林

을 님이라 그레 그말듯고 아미타불을 부즈러니 생각하  
러니 두히를 지내야 병도 조코 아미타불이 드러 가라하  
니 그레 슬피 하며 붓그려 하면 쉬자 아미타불이 님오되  
네오래 병드러 그 뒤 슈고 만히 하코 산 님불이 님 침듯고  
네 님불이 병도 조코 님명이 다하시니 네일 쉬방의 가  
리라 부모와 일문들오라 하야 차반를 이 밧고 가옵세다  
흔히 자아 비고 거듯지 아니 하다가 아모 허나 과이타하  
고 음식을 만히 하야 부모일문을 이 밧고 그테 님오되네  
님불을 다 가아미타불이 드러와 시니 내쿠낙 혜제로  
가오니 부모와 동성일문동이 데도 님불을 하야 호날노쉬  
방의 오쇼쉬 하직 하코 주거갈세세 그모 혼사 립들이 보

니아미타불뒤홀조차가더라후시다

屠牛善和 十念往生

왕성천의닐오뒤백령장천해물과소와자바먹더니쇼  
두머리사름이되여닐오뒤테우리를만히취견스니라  
후니장선화불나야계집드려닐오뒤밭비중을청후야  
나를구레후라후니그테중을청후니중이와닐오뒤광  
경의닐오샤뒤디옥들사름호주글싸에나무아미타불  
얼번을청면셔방의간다후시니라장선화그말듯고주  
글씨예밭비호손애불잡고또호손애향잡고아미타불  
얼번을청고계계집드려닐오뒤네보니아미타불이셔  
방으로부터와나를드려가랴후신다후고그말고주

崔大阿只兩主

仇望月兩主



다하시니라

제리나 땅으리나. 텨불관후후의리라

제경에셔가부테님이날오샤되부테와보살이만만우  
수중야도셔방아미타과관음보살이웃듬미라하시니  
말세예남지나타인이나나무아미타불열번을텨공하면  
비록다우를죄를지어도다쿠낙세게에가리라닐으실  
시진셔못후고인문후는사몸을위후야. 기쁜경에셔줄  
엔문으로셔내야대도텨불출알고텨불통참후야셔  
방곡낙세게가게권후되다쇼아미타불만텨공기적다  
타기지마로쇼셔불경을만히본중도아미타불과관음  
보살을낫밤업시텨공하니다쇼참선과불경보기는대



도 못 승려니와 이 책을 보면 틈틈이 승려가 되려나 마옵  
 나 모다 보게 승려의 심말고 또 다른 잡애하기 책을 보  
 지 말고 이 책을 승려나 보거나 승려 사름은 다 극  
 낙 세계가 오리다 또 쉬방하기 어렵다 나르지 마시 소약  
 간 틈틈이 야도 다 가리라 승려고 극 낙 세계간 사름은 다  
 부테 되니 다 승려시며 또 부테 되면 엇셔 승려고 권심 일과 현  
 더 만물을 다 알고 신통저간은 백만 장은 도 못지 못 승고  
 병들며 죽기 전으로 면승려다 승려시니 라 슬프고 슬프다 사름 마  
 다 제 마음 미실 노 부테로 되네 마음 이 부테 줄 아지 못 승  
 고 부테 되기 어렵다 승려니 부테 되네 마음 이 부테 줄 알고  
 악수를 말고 효양과 보시와 틈틈이 악간 승려면 쉬발원하

기를쉬방가고취함면부페되기쉽다하시니라살노슬  
 뜰지라백혜을살사람이적거를천년만년이나살가함  
 꼬디옥즐람심악스만즐기고쉬방갈선스님불노즐기  
 지아니함니노불법인연업노사람은제날오디아직  
 이성의호스영화부귀만조아함고후성길닥고물다거  
 좃셔시라함니다장경예닐오샤디디옥고홍슈함기  
 실노무쉽다하시니부태님말슴을고지듯디아니면반  
 드시디옥을면티못한다하시니라그러므로불법인연  
 업노사람을취함야불법을니로도말고권도말고어전  
 사름은이척을보고또다른사름을넘불관호소쉬방재  
 라함노사람이함들근사름넘불관호고함가지로쉬방



가다하시고선동테라하느야히제어버이을념불원하  
야한가지로극낙세계가타하시니라또빅령장천화도  
나무아미타불열번를하고취방가다하시니슬프다플  
긋티아슬즈트공숨이아참의잇싸가나죄주그며오날  
잇싸가니일주느거슬천년만년이나살가하야세간탐  
심하느니라유죄슈흔새예척스권속드디신티못하교  
제죄는제슈하다하시니라또이몸주근후에느상좌와  
터스권속이만만하야도망자위하야선왕지초지오지  
나하야망자제도하자하리느적고쇼와둑과만히잡고  
영장인스나잘하자하노니슬프다망자느허우죄상이  
만만무궁하다하시니모다알오쇼취경에닐오샤디비

룩다우를사루도주글새에나모아미타를알버를하면  
 디옥을면하고섭방의간다하시니고로슬피말고념불  
 하라권하고모다한가지로념불하고주근후익쪽을  
 하쇼셔쇼고기와수를긋치기쉽거든말고념불하면부  
 례되기쉽다하시고쇼비록긋치기어렵거든긋티지못  
 하야도념불한쇼셔하물이업다하시고다디옥은면  
 하고쿠낙의간다하시니안니하는사름과는실노낫다  
 하시니쇼념불하는사름은귀신또보채지못하고시왕  
 도자바가지못한다하시니라쇼쿠낙세게어디인고  
 이하지는섯역크아시킴장머다하거니와잠간스이  
 예간다하시니근심말고부모효양과보시원수와념불

동창과 약간 하 면서 석방으로 하고 취하면 반드서 간다  
하시니라 또 념불을 기슬거나 잊거나 하야 념불 못하거  
든 내척시 주를 약간 하 면후 가지로 석방가오리다 슬프  
다 인간사름이 낙간보시 현스하 면 영화부귀를 보고 취  
하니 후생애 복덕은 슈하야 또 악죄하 면 또 로디옥을  
면티 못하 다 하시니라 또 전생애 보시 현스하 니는 이상  
애부귀하 고 못하사름은 가난 초천하 다 하시 고 또 나로  
의 살생자느 단 명하 고 세스 간 탐자느 디옥 들고 념불자  
는 방간 다 하시고 또 직자느 종과 물과 소와 된 다 하시  
니라 또 모를 큰 심하 거나 몬취주거나 하느는 지시은 다  
원슈로 쉬되어와 신니 부덕 현의마로 소석 부모는 원슈

한이... 오다... 설위... 니... 포다... 법을...  
...으로... 알기... 되다... 이름... 참... 소...  
...

念佛作法次序 淨日業真實

唵修唎摩訶唵修唎修唎沙訶 三誦

唵... 작... 법... 처... 레... 라... 텡... 구... 임... 진... 언

음슈리슈리마하슈리슈리사하 삼송

開經偈... 無上甚深微妙法 百千萬劫難遭遇 我今聞見得受持

願解如來真實意 如經云

무상심심미묘법 비천만겁난조우 아금문견득슈저

원하여리진심의

원하여리진심의

普勸文

開法藏真言

기법장전언

唵阿羅喃阿羅施 음이라람아라라

천슈천안판즈지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신묘장구  
대다라니왈

나우라즈나즈라야야나막알야바로기터샤바라야모  
지사즈바야마하샤즈바야마하가로니가야음살바바  
예수즈라나가라야다사명나막기이다바이말알야바  
로기터시바라파바나라간타나막후리나야마발다  
샤미살발샤사다맘슈반애예염살바보다남바바말야  
미슈다감타타. 음아로게살로가마피로가리? 란테해  
해하메마하모디. 사즈바스바라후리나야우로쿠로가



權以祿兩主

鄭法淨兩主

마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틴제 마하미틴제 다라다  
 라 다린느 레시바라 가라가라 마라미마라 아마라 몰테  
 예헤헤 로테시바라 아미사미 나샤야 베사미 나사  
 야 모하 자라미 사미 나샤야 호모호로 마라호로 하레바  
 누마 나바사라 사라시리 소로소로 몬다 몬다 못다  
 야 모다야 미느 리야 니라 간타 가마샤 늘샤 남브 라츠라  
 나야 마낙스 바하 싯다야 스바하 마하 싯다야 스바하 싯  
 다유애사 바라야 스바하 니라 간타 야 스바하 바라하 목  
 카싱하 목카야 스바하 바느 마샤샤 야 스바하 차그라유  
 다야 스바하 샹가심나 비모다 야 스바하 마하 화구타다  
 라야 스바하 바마스 간타 디샤 세타 파그릿나 이나야 스

善勸文

三

三

바하야라 잘마니바사나야사바하나모라가나라  
야야나막알야바로기티사바라야사바하

道場偈

도량계운

道場清淨無瑕穢 三寶龍天降此地 我今持誦妙真言  
願賜慈悲密加護 도량청정무하에 삼보송천감초디  
아금지송묘진언 원스스비밀가호

懺悔偈

참회계

삼설

我昔所造諸惡業 皆由無始貪嗔癡 從身口意至所生  
一切我今皆懺悔 아취소조계악업 미유무시탐진티  
종신구의디소성 일취아금지참회

讚佛偈

찬불가

阿彌陀佛真金色 相好端嚴無等倫 白毫宛轉五須彌  
紺日澄清四大海 光中化佛無數億 化菩薩衆亦無邊  
四十八願度衆生 九品咸令登彼岸 以此禮讚佛功德  
莊嚴法界諸有情 臨終悉願往西方 共覩彌陀成佛道  
極樂世界宝池中 九品蓮花如車輪 彌陀丈六金軀立  
左手當胸右手垂 綠羅衣上紅袈裟 金面眉間白玉毫  
左右觀音大勢至 侍立莊嚴審諦觀 啟命聖者觀自在  
身若金山鬘鬘花 啟命聖者大勢至 心智光明照有緣  
三聖所有功德聚 數越塵沙大若空 十方諸佛咸贊歎  
塵劫不能窮少分 是故我今恭敬禮 我執念珠法界觀  
虛空為繩無不貫 平等舍那無何處 觀求西方阿彌佛

南無阿彌陀佛 或十聲 百聲 千聲

아미타불진금식 상호단업무등은근 비호완틴소슈미

감목딩청소대히 파응화불무수익 화보살중영무변

수십팔원도중성 구품함팅등회안 이츠테찬불공덕

장엄법계취유경 님중실원왕성방 공도미타성불도

극낙세계보디통 구품틴화여걸름 미타대유금구님

좌유당홍우유슈 녹나의상홍가사 금면미간빅속호

좌우관음대세지 시니장엄심테관 귀명성자판주제

신약금산침복화 귀명성자대세지 심디광명조유연

삼성소유공티취 수월틴사대약공 시방제불함찬탄

진거닐블느구소분 시고아공공팅에 원사지성부별승

나무나미타불

후십성

십성

천성

南無西方淨土極樂世界三十六萬億一十一萬九千五百同名同號大慈大悲阿彌陀佛

南無西方淨土極樂世界佛身長廣相好無邊金色光明  
遍照法界四十八願度脫衆生不可說不可說轉不可說  
恒沙佛刹微塵數稻麻竹葦無限極數三百六十萬億  
一十一萬九千五百同名同號我等道師金色如來

나무석방팅토극나쉬게삼십억만억일십일만구천오  
백동명동호대즈대비아미라불

나무석방팅토극나쉬게불신장광상호무변금성광명  
변조법계수심팔윈도탈중성불가설불가설년불가설

홍하시불찰미딘수도마득위무호수삼비고구심만익  
일심일만구천오빈동명동호아등도소금식여리

南無無見頂上相阿彌陀佛 南無頂上肉髻相阿彌陀佛

南無髮紺琉璃相阿彌陀佛 南無眉間白毫相阿彌陀佛

南無眉細垂揚相阿彌陀佛 南無眼目清淨相阿彌陀佛

南無耳聞諸聲相阿彌陀佛 南無鼻高圓直相阿彌陀佛

南無舌大法螺相阿彌陀佛 南無身色真金相阿彌陀佛

南無文殊菩薩 南無普賢菩薩 南無觀世音菩薩

南無大勢至菩薩 南無金剛藏菩薩 南無除障碍菩薩

南無彌勒菩薩 南無地藏菩薩 南無清淨大海衆

菩薩摩訶薩願共法界諸衆生同入彌陀大願海

十方三世佛 阿彌陀第一 九品度衆生 威德無窮極  
我今大故依 懺悔三業罪 凡有諸福善 至心用回向  
願同念佛人 盡生極樂國 見佛了生死 如佛度一切  
願我臨欲命終時 盡除一切諸障礙 面見彼佛阿彌陀  
卽得往生安樂刹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當生極樂國 同見無量壽 皆共成佛道 往生偈  
願往生願往生願在彌陀會中座手執香花常供養  
願往生願往生往生極樂見彌陀獲蒙摩頂授記前  
願往生願往生往生華藏蓮花界自他一時成佛道  
南無無量壽。南無阿彌陀佛。南無無量壽。南無阿彌陀佛。  
南無阿彌陀佛。南無阿彌陀佛。南無阿彌陀佛。南無阿彌陀佛。

남무미세슈양상이미타불 남무안무청정상이미타불  
남무이문제형상이미타불 남무비고원행상이미타불  
남무철대법나상이미타불 남무신식진음상이미타불  
남무문수보살 남무보현보살 남무관음보살남무대제  
남무금강장보살 남무제장애보살 남무미륵보살남무다장보살  
남무청정대히중보살마하살원공법제제중성동입어  
타대원히 시방삼세불 아미타테일 구품도중성  
위덕무궁극 아금대귀의 참회삼업죄 범유제부선  
지심용회향 원동님불인 진성극낙국 견불노성스  
여불도일체원아입목명종시 진제일체제장애  
면전피불아미타 즉무왕성안낙찰 원이초공덕



복합어일체 아등어중성 방성부낙동변의량유  
기공성불로 왕성계

원왕성원왕성원지미타회중좌슈집향화상공양  
원왕성원왕성왕성부낙견미타회몽마형슈귀별  
원왕성원왕성원성화장년화계즈타일시성불로

여리십머발원문

원아영노삼약도원아속단탐친치원아근슈계형혜  
원아상문불범승 원아홍슈계불후 원아불퇴보리심  
원아결텅성안약 원아속견아미타 원아분신변진찰  
원아광도제중성 원이원이발원이귀명어삼보  
노발원문의어사림이다부낙세제가여리다양성

호변의외오소서

슬프다며도 텨름 못하거느 전성어 불범인 텨이 업서도  
못하고 부귀호사름은 부귀에 골몰하야 못하고 또 구우  
실이 안호사름과 가난호사름이 데도 텨름 못하거느 니  
척사쥬약간하거나 쥬니 척판화쥬을 호는 사름은 반드  
시극낙세게가 오리다 쥬니 척을 호변나나 보거나 듯거  
나 호는 사름도 다극낙세게가 오리다 쥬사름이 주글새  
예우지 말고 모다나우아미타불하다가 주근후에 쇼영  
호후에 꼭성을 호라하시니라

도 텨름은 상해남 텨 업시다 하라 하야 시되 데도 호를 줄  
올아지 못하면 나척을 써나야 데도 후세 사름으게 전세

야대도 동참하야 다쿠낙의가게 권하너다

나옹화상셔왕가라

나도이릴만평세상애인재러니 무상을 무상은사름이

이라<sup>는말</sup>생각하너다 거긔긔시로쇠부모의기친얼골주은

후에속절업다적근닷생각하야 배스을후리치고부모

씨하직하고단포즈일남애칭네장을비기들고명산을

츠자드러선지식을<sup>선지식불법의</sup>친견하야<sup>친견하야</sup>무<sup>무</sup>음<sup>음</sup>을<sup>을</sup>볼

기려고천경만론을<sup>천경만론</sup>낫낫치추심하야<sup>추심하야</sup>극<sup>극</sup>전을

눈과코와혀와몸과귀와<sup>자부리라</sup>허공마를<sup>허공마</sup>

심<sup>심</sup>공<sup>공</sup>나<sup>나</sup>여<sup>여</sup>섯<sup>섯</sup>도<sup>도</sup>적<sup>적</sup>이<sup>이</sup>로<sup>로</sup>다<sup>다</sup> <sup>불법의</sup>손<sup>손</sup>애<sup>애</sup>들<sup>들</sup>고<sup>고</sup>오<sup>오</sup>온<sup>온</sup>산<sup>산</sup>

이라<sup>의</sup> <sup>무음과</sup>빛<sup>빛</sup>기<sup>기</sup>트<sup>트</sup>고<sup>고</sup>마<sup>마</sup>야<sup>야</sup>검<sup>검</sup>술<sup>술</sup>말<sup>말</sup>이<sup>이</sup>라<sup>라</sup> <sup>무음과</sup>손<sup>손</sup>애<sup>애</sup>들<sup>들</sup>고<sup>고</sup>오<sup>오</sup>온<sup>온</sup>산<sup>산</sup>

오<sup>오</sup>온<sup>온</sup>산<sup>산</sup>나<sup>나</sup>라<sup>라</sup> <sup>무음과</sup>그<sup>그</sup>러<sup>러</sup>가<sup>가</sup>니<sup>니</sup> <sup>무음과</sup>계<sup>계</sup>산<sup>산</sup>은<sup>은</sup> <sup>무음과</sup>버<sup>버</sup>노<sup>노</sup>심<sup>심</sup>미<sup>미</sup>라<sup>라</sup> <sup>무음과</sup>천<sup>천</sup>침<sup>침</sup>봉<sup>봉</sup>고<sup>고</sup>서

상산이 상상산 음사상신상  
슈자상이라 덕옥롭다 후근물두애  
슈롭

과코와 혀와 귀와 몸  
자최업손도적은나며들며  
항심을

말이라 하는중이 번노심베  
취노코지해로베를무어

삼계바다 삼계는 육계  
육천파삼계심판  
전네리라  
틈불

중성사러두고 삼승담씨  
예일승득글  
삼이별말  
라두고

츄풍은습히불고 비운으  
섯도는덕인간을  
싱각  
하니슬

프고실운지라  
틈불마는중성드라  
멋싱을살  
나고  
고세

스만탐착  
야이  
육의  
잠  
것  
는다  
하  
르  
도  
일  
두  
시  
오  
찬  
돌

도셀  
존  
날  
애  
어  
니  
날  
애  
한  
가  
흔  
고  
청  
터  
흔  
불  
성  
은  
삼  
롬  
아

다  
차  
신  
돌  
어  
니  
날  
애  
싱  
각  
하  
며  
홍  
사  
공  
덕  
은  
본  
니  
구  
독

흔  
돌  
어  
니  
시  
에  
나  
야  
날  
고  
불  
성  
은  
삼  
롬  
아  
다  
쉬  
왕  
은  
머  
리

美海源兩主 美凡金功

지고 나기왕수국 지속은 갖갑도쇠이보시소어루신네권

하노니 종제선공시무시소 종제선공부모호양불공 보시번 불희주공시의라금

성애하온공탁후성애유하느니빅틴탐물스스하리아적

뜻클이소 사름이주근휘면혜간 삼일하온팀불은빅천

만집에다홍입스보되로쇠어와이보되릭천집이분공

하고공만혜이장금이라 사름의불형은살며늘고며 들며추노고외다압다호아리

라간공이남다흔들이 사름의본심광명은하늘사 미출손가일월이불다호

들 미출손가 미출손가 히클광명도밋지못흔일이라 미출손

제불스이 미출손가 미출손가 아리시고 미출손가 중심수이 미출손가

릴시 유도노환상파인간 미출손가 귀신파 미출손가 삼계 미출손가

굿칠손고 사름되며 미출손가 중심되며 미출손가 기름 미출손가 권근 미출손가

美海源

美凡金

萬物皆初의고타히를생각하니산침침수잔잔풍을  
 화명명고송죽은낙낙흐되화장바다내인간세  
 져어극낙세계드리가니칠보금디에  
칠보금파은과  
 복진주칠  
 뵈나라 칠보망을들니시니구경하기다우조하구품  
 년뒤에. 텀불소리 자자잇고청학백학과인무공작과금  
 봉천봉은하느니 텀불일쇠천룡이전듯부니 텀불소리  
 율요하외아와슬프다우리도인간에와와하 텀불말  
 고어이홀고나우아미타불

산과문 因果文

何가세존님은상계도사고소성에부오시라사람이  
 라하느니가소심개부침만귀우무고히아인성난은정복

난득출가난득불법나방아니온가천디간의최귀출해  
다문사름심니로다이보소어로신네이내말삼드리보  
소버리도셔리도굿도입슨마리로쇠인간에행득인신  
내와취해간의유만탐착고추스길닷기모루는다무상  
은신속하고<sup>사름이수이</sup>라이취월은수이간다인연천종부  
모호양봉스스장충신부덕님불동참불공보시히온밤  
괴셔무스일이잇듯틴고인간에나온사름목숨을하여  
보소천년살며만년살가이심전의를러닛고우심현현  
망녕되고인스아라사는거사다문수심년심이로쇠슬  
프다이몸이주것다가다시을가사름어더저신혼가갑  
슬주고여힐손가이내몸에중병은리끈고히아야라후릴

귀국의 치 못함을 귀길힐외고 품고 타우 설다 그 밖의 조설  
운이론주 쉬히스로 리라 후루사리고 특인성을 만반  
치갈게 미더해스 만 탐착하고 번노 중에 잠겨서 인연  
종부모 호양 탐불 통참 불공보서우시너겨 불연 못민사  
롬드라 명망 출고 날애 탐나대 왕보낸오 신인르 사자 백  
스시 환손애 쇠채 들고 조 환손애 한드 들고 두문전가르  
집고 여셔나라 수이나라 귀후하거든 귀말이라 거실손  
고부모 동성 처주노 비갓타고 두하야 신들라 신가리  
이시며 금은옥 비귀 호음식 알희마 두하야 신들먹고  
여가 귀갈가그아니 실물손가 천하의머 무리인노 황  
왕후후공지 상부 귀장자승승 남타거사 당존비귀천



노쇼부인만물중심피치못홀죄길히시왕새자히드러  
 추열다짐사비장단가지지무르실죄안간이디은죄  
 노염나대왕업형뒤에났낫치비초엇고 죄시왕이명간어  
죄거울을두고  
 인간사롬을자바다가무로실게일성저은죄과현과거  
 울에났타나니 게가쳐는호말도기존말을  
학저못홀다  
 니라시 테현공나망중이났낫치어루어시니어디가홀말  
 이나거죽다짐항을손고네님으로스론후에그뉘라쳐  
 구죄홀고우두나찰마두나찰 사롬자바가  
우졸나라가모도쉴여드  
 리드라죄사솔목의걸고죄방마치들러메고스방의들  
 러쉴디옥으로보내실죄일목귀왕삼목귀왕나와겨  
 쉼침살메오시고항새족죄저초시고이리가자적리  
 가자죄채로차시며모라가니홀우이나머물송가년분

길초바지고조분길어두온지소소의송풍소리에팔만  
 수천무간디옥철위성도노프실샤외문안드리드라목  
 버히며허새며굽거니뎡거니켜거니세거니가지가지  
 로다소리니야야아우논소리난오늑월가온대억머  
 구리소리로다아흐몸가지고백천가지곳취되어머고  
 통슈할취귀그엇지아니철을손고목물나라을취귀구  
 리쇠노긴물머기시고빅고파라을취귀몽등철한베외  
 시고후루도염두시요한들도철술날애일만번을주기  
 시고일만번을사로서니할니런가잇두린런가천만년  
 을다내에도너할그악업라하니잠잠조헤여보소엇지  
 아니철을손고슬포고철은지라인간애행득인신나오

신존비귀천승속남티기스샤당노소해인악공신네조  
비히해염소골곳티이솔곳은인성을천안변어나살가  
하야해스만탐착하고인성안두불범난봉은정혜성과  
키야나하느니슬프다디우고상유할귀귀크누리라셔귀  
심할고권하느니라현근사무시며해스탐착타모말고  
님불동찰양음시소어싱애히온공덕은후싱애슈하느  
니디우현악보응과보스느다이룬웨업스와대강안솔  
소와전하네이다

大佛頂首楞嚴神呪 大佛頂首楞嚴神呪

跢姪他唵阿那隸吽舍提鞞囉跋闍囉唎槃施槃施餘  
跋闍囉訪尼泮虎吽都嚧雍尼泮娑縛智

다지타옴아나예비샤테비라발샤라도리반도반도년  
발샤라방의반호호호도로음반스바하

관음보살조제여의능주

나모못다야나코달마야나모성가야나무아력야바로  
기다와라야보디사다야마하사다야마하가로이가야  
하리다야만수라다야타가가나브라디단다마니마하  
무드레루로루로지차항리다예비샤에음부타나부다  
니야동

도양반생인중거스부인샤당대도비망음이실노형인  
부테즐알고비록가치가지지만가지이글호면석도선방  
아미타불을니치말고념호시소또아미타불만호기적

다마시소아미타불을 논사 롭다 극낙의 가오리다 또니  
칙을 시쥬의 물이니 혼자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주며 권  
하지소 불법아는 티가 섞 참회하고 또 불법말씀을 드  
르시고 부지 념불하야 혼가지로 극낙으로 가세 니다 나  
무아미타불

流傳記

於戲人間雜善雖云萬種功莫大乎念佛也何則仁義孝  
敬建立佛事乃至種種之行皆是有漏之因終未覓三界  
昇沉之報至如念佛之功則臨死之時直往西方皆成佛  
果也乃以欲成佛果者舍此而奚適哉大抵今觀世之大  
小人皆好其古談之冊而不好其念佛之冊其亦不思之

甚矣經云念佛之冊或施或傳若見若聞則逕投樂邦皆以成佛也而况用財印傳無可披閱者乎吁物之興廢今古無常後之善男與我同志嗣而刻之印施流傳千萬方歲之無窮同故極樂幸甚

歲在赤鼠暮春餘航山下閑良朴思寅盥手記寫

유전이라

슬프다. 인간보시원스만만하니, 임불칙을 낫간사주  
함만갓지 못호디라. 귀경에 부테님이 털오사. 티 불공보  
시화. 주원스을 하면 비록 부귀는 유후나. 도로싱스을면  
치 못호. 내와. 념불도 참사. 주낙간호사. 롬은 다. 디. 옥을면  
호고. 석방의 간다. 호. 시. 니. 라. 대. 도. 념불호. 기. 슬. 커. 나. 이. 귀

서 못하거든 나 칭화주나 시취나 낙간하야도 절행디  
옥을 면하교 바로 취방극낙 취게가 오리다 또 다른 잡취  
테아기 칭을 보지 말고니 텨불 칭을 호변니 나 보거나 듯  
거나하면 취방의가 오리다 시고로 다른 화주파시주만  
만히야도 나 칭화주파시주낙간공덕만 못하며 또 식  
기죽거든 부평설위마시 소부모몬 취주는 식은 다원  
슈갑프리왓다가 주고니 부디 설위마시 소 또 텨불하기  
는대도 남저나 비인이나 하라하야시 더 사슴마다 제  
음미살노부텨진 줄을 아지 못하교 취간 탐심파 호스만  
기고 후성칠탁그물아니하거니와 디옥고 상슈하기  
장유고로 온 줄 아지 못하니 살노불상하교로 해도 알

외니라. 인간다로보시. 천수올만만무궁하야도. 님불  
척화유과사주나. 낙간동참공덕만. 지못하오이다. 또  
니척을부간이나. 바가버야척후세사람의게. 권하면고  
공덕을다나르. 지못홀소다. 또부모조식기나. 주클새에  
슬피말고모다. 님불나무아미타불하. 다가주근후에. 푸  
성을하. 시소. 또조식기나. 죽새든. 철위말고. 슬피마시. 소  
경에. 님오. 더. 부모. 몬. 견. 죽. 느. 조. 식. 온. 다. 원. 슈. 가. 프. 리. 온. 조  
식기. 라. 하. 시. 니. 부. 더. 슬. 피. 마. 소. 또. 니. 내. 몸. 주. 근. 후. 면. 세. 간  
사. 다. 거. 죽. 거. 시. 니. 어. 척. 이. 텨. 불. 동. 참. 인. 텨. 하. 야. 한. 가. 지. 로  
셔. 방. 극. 낙. 세. 계. 로. 가. 읊. 새. 다. 쿨. 권. 하. 니. 다.

臨終正念訣



善道和尚臨終正念訣云知歸子致問於淨業和尚曰世  
之大者莫越生死一息不來乃屬後世一念若錯便隨輪  
迴小子累蒙開誨念佛往生之法其理雖明又恐病來死  
至之時心識散亂仍慮家人或動正念忘失淨因伏望重  
示歸徑之方俾脫沉淪之苦師曰竒哉斯問之要也凡人  
臨命終時欲得往生淨土者須先準備不得怕死貪生常  
自思念我現在之身多有衆苦不淨惡業種種交纏若得  
捨此穢身卽得往生淨土受無量快樂見佛聞法離苦解  
脫乃是稱意之事如脫臭弊之衣得著珠御之服放下身  
心莫生貪著纔有病患莫論輕重便念無常一心待死須  
囑家人看病人往來揖問人凡來我前但爲我念佛不得

說眼前閑雜之事家緣長短之事亦不須軟語安慰祝願  
安樂之詞此是虛華不實殃及之語及至病重命將不久  
之時家人親囑不得來前垂淚泣哭鼓嗟嘆懊惱之聲或  
亂心神失其正念但教記取阿彌陀佛一時高聲爲我念  
佛守令氣絕待氣盡了方可哀哭或有明解淨土之人頻  
來策勵其理最佳若如此者千萬往生必無疑也此是端  
的要急之旨當信而行之問求醫服藥應不用也答此但  
論用心耳服藥醫瘡不妨自求然藥只能醫病豈能醫命  
耶命若垂盡藥豈奈何問神祇禍福求禱如何答人命長  
短生下已定何假鬼神延之耶世人迷惑及更求耶殺害  
衆生祭祀鬼神但增罪業倍結冤讐及損壽矣大命若盡

小兒奈何空自憧惶必無所濟切宜謹之當以此文帖安  
堂前飲食之處及往來要路之間令時時見之常記於心  
免見臨危忘失問平主不曾念佛者還用得否答此法僧  
人俗人不念佛人用之皆得往生決無疑矣余多見世人  
於平時念佛禮拜設願往生及到病患臨終但只怕死都  
不見言此事直待形消氣絕識投冥界方始十念譬言如賊  
去關門濟何事耶而况死門事大須自著便宜一念蹉跎  
歷劫受苦誰人相代思之思之

선도화상의 님공정님철의니로되지러지정엄화상개  
우러마르되혜상의큰거시상의디버미입스니호숨  
이오지못하야이의후성이되미니호님만일그면



문득난히예뻐리질하시니 소진저로마르침을답스와  
 넘볼양약극나왕신음법음바루볼켜소오나도흔병드  
 러주글해예미소미살난함미저프며도집안사람이나  
 의적음을어즈려넘볼을일출유서럼함음느니긱스브러  
 브러나나시도라갈법을보이사생스에람흔지골들  
 벗게호쇼셔화샤이되답함야가로되괴특흔디라너의  
 무름이중오름다대개사름이주글해예정도에가고져  
 흘린편브더문적암길흔살피되추검을저히말며살기  
 를탐타말코스스로싱각호되이몸이괴름기느모딘약  
 업이얼비인타시니만일이타리온몸을바리고적도도의  
 외신우야볼을보스와법을듯조고고를어희고무량객

락을 슈호미 아거 시 뜻에 마준 이리니 내는 터런 오  
슬 버서 버리고 보 뵈엿 오 슬 여 터니 보 미 것 한 디 라 문드  
이 몸 이 터 터 디 아 니 호 문 텨 문 하 야 일 심 으 로 주 기 를 기 드  
리며 또 집 안 살 문 파 병 디 해 여 보 는 사 롱 파 와 이 령 하 야 문  
는 사 롱 을 유 초 하 야 나 로 터 내 호 터 의 는 니 호 고 직 날 위  
하 야 텨 문 을 호 고 디 른 집 안 여 리 가 짓 문 별 슬 란 나 르 디  
말 나 하 며 또 병 문 하 며 오 래 살 말 을 란 브 터 니 르 디 말 라  
이 근 속 전 업 순 양 회 비 출 말 이 라 또 집 안 사 롱 두 려 다 시  
나 로 디 문 이 쫓 아 들 에 는 문 을 리 며 슬 피 우 는 소 리 하 야  
나 의 전 문 을 일 케 말 고 다 문 날 을 마 르 치 터 아 비 타 문 을  
싱 각 하 라 하 라 호 고 일 시 에 고 성 으 로 텨 문 을 하 며 부 터

트크리명종계항며명종항야오래거사공을하라만일  
 이그티항면사름마다왕성호미반그시의심업스리라  
 이말이사턴실항며중으로오미급절함말이나맛당하  
 신항야항을셔나라쇼이발을귀루항야밤면노곳과왕  
 리항야조르보노곳에브터두고시시예보와창테만숨  
 애싱각항야명종시예당항야닛디말을셔나라이범은  
 승인후인이일성님불아니항면사름아라조다왕성호  
 미결명항나라쇼의약을구항야보미엇더후닛코되탐  
 항노니이근오직님홍에용심항기를의논함서름이타  
 의약은오직병을곳티미언형엇디능히명을길게항리  
 오명이만실중을해면의약인들엇디항리오신귀신세

비려화복을구호미엇디스니고담부노니신명양단은  
초성시에임의형양야잇느니라대명이다후면조고맛  
귀신이엇디길게하리오아무리천만가지로비려도속  
질엄스며저어러명을살해하느니라무효죄업이태중  
하요원슈를질하느니라도회깃뫼숨을즈러죽게할  
저롬이니라저세상사롬이평시에느우님불승며테비  
하며발원왕성하다가병환남중하야느우직죽기를저  
평으로우희나르말을란성각디야니하고바로명종  
하야혼식이명계에노라간연후에사비로소심심님을  
이나한들엇디하리오비컨대도전나간후에사문을다  
든들엇디하리오세상에죽느이리크고크개브디즈가

三十九  
편의을스찰히니라. 더종시에 날 탐이 그릇이 면 안  
을슈고하리니 그 허미 어니 사름이 더들리 오부기 부기  
심고하히니라

父母孝養文 天地廣大

長蘆願禪師作勸孝文一百二十篇前百篇言孝養甘旨  
為世間之孝後二十篇勸父母修淨土為出世之孝世間  
之孝一世而止出世之孝無時而盡能使父母生淨土莫  
大之孝也父母現在而不以此勸勉他日徒爾傷心徒為  
厚禮亦何益哉觀經前後兩說孝養父母為淨業卽此意  
也又曰父母信知念佛蓮花種植時也一心念佛蓮花出  
水時也念佛功成花開見佛時也孝子誓其往生時至預



以父母平生衆善聚爲一疏時時讀之今生歡喜又請父母坐卧向西而不忘淨土設彌陀像燃香鳴磬念佛不絕捨報之時更須用意無以哀哭失其正念父母得生淨土受諸快樂豈不嘉哉平生孝養正在此時寄語孝子順孫無忘此事

당노산종적선시효양은을일벽이십편을작하니벽편은효양감지을나르시니세간지효의오이십편은부모의념불을권하시니출세간효되라세간효는금심인심이오출세간효는무량세이능히부모로하여골육낙정토에나게하시니이만큰효업스니라부모현저시에초수로권타아니하고소후에흔갓설의하시흔갓례수를엄

히인도모습니익이이서리요심득관경권후나심인호  
 양부모로침입을삼으시니곳이쁘이니라호로되부  
 모님물음심줄노신하야아로모년화를심고느세오일  
 심으로님물음은년화물애셔날애오님물공을일음은  
 년화피어부터를보소을써니라이럴베호조느그왕성  
 홀애를슬퍼미라부모의평성에지은밭선근으로호소  
 홀밍이라시시에득송하야환희심을베게하교셔청호  
 지부모를좌와애셔로향하야경토를닛디말게하며미  
 타상인이나후위목을서편으로모시고향피오그경외  
 티커님물음을그치디아니하야몸은닐릴애에다시마장  
 용시무하야이꾸지성으로침님을일케밀혀니라부외정

토에나셔무량쾌락을슈게 흠이엇다 지극지대호호도  
아나리오평성효양이정국이색에이시니효조완손새  
말을보타스니이이를닛디말을허니라

화심가곡고수

런리의외분호후연 음경무경삼근일골

삼나만상닐어나니 런진면목절묘호덕

범부고덕성인되오 호순우탕문무주공

오직사림최귀하다 삼강오상팔조목을

티명세에장엄하니 동서남북간되마다

금슈상에침화로다 청데스티화함이나

런하런평이가엄선 어화화고야이





안양궁이거의러니

우라민심황포옹탄

태고런다수러오코

야속호심말서풍속

웃간일월불가시되

흉호신형다브리코

어유망영근강크러

가련하다일발부모

형테투징마달나

의로올되마히업서

문외예바잔일며

끝육상잔제리항니

홀나느니노를일다

존외인을의논을가

인심이더변항니

대호악귀모라나야

턴신이바드노항야

비명악수수임스며

한지풍쟁조조트러

김가박가사름마다

천문만호기판항니

부모취조분리항야

농상친변습의사하

참음한다추침어

여기테기피소하니

다모도익가마피라

불순인도슬피시소

턴고청비조벳터

우턴지양테려하니

즈기촌심바로핀터

일변으로틈불하꼬

구턴이감응하면

일변으로충효하소

요순테평아니불가

불범어지일팅하면

틈불하면불범이우

요순어저시이실고

충효하면요순이나

충효가적입신하꼬

아미타불태주사

틈불가적안양가선

틈불범범무고디뜻고

발원하야닐사하

안양구영가온후에

농상친변습의사하

참음한다추침어

내면적 탐불중야

귀천남티노쇼업신

나의명호외의니면

극낙으로바로갈줄

악취중에아니가고

수심팔원세위신

세망에결단사름

비감심을니르와다

불공구으로인도후

즐거브터탐불중소

금시머평후시안양

금구소실무상범을

만고복타구홀딘대

지성으로봉제중수

셔가여민출가시에

황개청개받치시고

뉴리년상칠보궁에

삼천궁터서위하니

년상인간아목되도

헌신긔티비리시고

터전복년업소우된

만첩첩사흔자드러

후된고형님불중야

세간영화뵈고고

극낙으로도라가니

불법진락업슬던대

안승왕위브리시고

출타진인드일던대

설산고형티리홀가

님불일형최귀홀다

설산대스형스보와

세간탐심못브리면

출동학이어셔되속

삼악도에베러디고

물외스름죽스오면

즈조즈조님불중야

안양세계간다홀니

불죽으로어셔가세

부모효심바히업고

무쌍부덕브라보며

님불호반아니홀면

장슈조자기드리니

동동홀면다구신가

신심업셔도야나며

한글

안조방이엇디날코

공경엄시득호일대

신광선스풀비하면

념불비방죄를보소

선지동지블에들가

우마샤신터안닌가

선히닷근덕을보소

팔만대장니른말과

국왕대신녀안닌가

빅천논소사긴말슴

금호거시탕옥이오

이리귀호사름인제

권호거시념불이니

터리도호진모법을

못드고느말녀니와

경토문을귀경호니

듯고참아아니호가

신심으로념불호면

극낙도스아미타불

칠보턴뒤옥호광에

금년으로드러가면

무상배락슈호새에



만세만세디나가되

인간고초하현우니

반일구사닐시니

터질락에어쉬가서

몽중구호사암사리

천세벗게사극라고

초로인성구디더겨

무훈탐심닐와드년

진심약상노치올라

나의운심모로거드

디면후기늘남스외

눔을보와헛티시속

무상살귀노라드러

힘을가져당적공며

스대환신헛셔벌지

저를가져인적은글가

만당취즈어디쓰며

도산검슈제디우에

우양전지티드릴가

만반고통슈홀새에

디장부살대원인들

블속에죽는나빅

티를엇디구테홀고

젼들가든엇다홀고

즐어죽느쥬식에노

질락슈홀넴불에노

귀천엄시다즐기고

승속남녀다피호니

알세되예그리훈가

덕디왕후고금호전

지혜인<sup>부이</sup>하조적기

부귀공명취조의를

왕범으로베말터도

넴불드고뿌여니

일텡말기어렵거늘

즉금성인이아닌가

아모참지넴불응면

아모스파김다호면

인인마다칭찬호고

노소엄시외다호니

현당카며디우갈줄

기한인을의식주고

사라신지알리로피

빈병인을구테호면

아당시비바히말고

요순면의의아니며

금슈보와의여말면

보천만형셔인논가

부모견에나사들며

인간발발삼히업서

합장공고습소오지

셔삼나기말민망승니

집이시중주야업서

근천공논고호조와

이적성호외오쇼셔

신권공논터부모논

비록말쉬나와서나

금성녀신드승사름

관음후실아니신가

견성죄르나와서나

음해자심다브리고

마야부인불의승녀

가비형삼님분동면

팔십승티의아닌가

빛바람과위부인을

주긴고자가드와늘

由五

유왕이

위왕의 슬피 울고

불을 지피고

팅산으로 내려다가

석가여왕이

극락으로 보내시고

경대부인

출판가호주목년존자

부안우계

팀불응야전터내교

손녀

오지팀불어쉬고

팀불응고주다나니

일해원슈밋디마소

광대팀동무량슈불

쉬가어리아나나고

저그삼예명빅하야

보리달마못와신지

부아모아쇼쇼고

이옥심야밤이되야

츠다팀라팀팀호원

의니슈를바히올나

어분아기 못이 드뭇

반야혜검이 혀 나약

가진점심비골송니

무명화초비히서 꼭

아미타불외소다가

실보포송디아터

즈기미타친치보면

극단극세니되노기

부노브람수풍스오

틴화티에솔라안자

보르곤광명스일이라

드주청다부어먹고

부수거를멍의메쉬

등등스름은스름은

족양천변방초안에

즈지히노닐면쉬

터평곡슬브르리라

나라리리라크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維摩經

山天書卷五



維摩經云佛在娑羅奈國說法要度衆生時國王率百僚  
眷屬來詣佛所白佛言世尊此國人民何故多病夭死不  
生信心一無成佛世尊答曰此國衆生常食前世疲惡草  
不信因果不修淨業故如是多病夭死皆入地獄受無量  
苦王聞語信受奉行令國中不食痰惡草此草有五種名  
一痰惡草二不明草三媻邪草四惡生草五多貪草此五  
名草食其罪甚重世尊謂王曰食此痰惡草者雖持淨戒  
修行小無功德是故痰惡草其臭甚惡不異於焚蛇之氣  
死墮焚蛇地獄歷三千劫後入鑊湯地獄又歷三千劫後  
更入阿鼻地獄世世生生不聞佛名字永不作佛

유마경의 운항오퇴 불체님이 받내 국가서실  
범호실사에 그나라 국왕이 권속파신하을 들  
리고와서 부체님이 살오퇴이 국익성남여등  
니엇지한고도 병이 만하즐러죽심느니고부  
체님이티달중애니로퇴이국의엇지항여질약  
초인느고로글한사롬니다글은즐겨먹고불  
범을낭다이스이싱각항고글러한고로그나  
라의충<sub>0</sub>저심히들고글러한사롬이즐러  
로죽거셔다제옥의들어헤아림업슨고생  
하니고을보이슬프다 국왕니그말심은드쇼  
늘내야국스남만민기녕을늘러와금지항시

되질약초먹글거시안니라엇지항여글러흔고  
그질약초임홈니다스가지라인의노질병초  
요이에노물병초요삼의노사음초요소의노약  
싱초요오의노다탐초라이오명초먹노재면죄  
김고중훈교로약간수형니잇고념블항야도  
공덕이바히업노고로주글샤에십와의벌치  
나와잡아다가추릴주의분사지옥의들러삼  
천겁수고고환탕지옥의삼천겁들어삼천  
겁을수고고다시아베지옥의념겨들러무량  
성소고을만고이항고췌췌성성의인간의나지  
못하니블법알도듯지못하노니라



佛說訶彌陀經

如是我聞一時佛在舍衛國祇樹給孤獨園與大比丘僧千二百五十人俱皆是大阿羅漢眾所知誠長老舍利佛摩訶日捷連摩訶迦菴延摩訶俱絺羅維波安多周利槃陀伽難陀阿難陀羅睺羅憍梵波提賓頭盧頗羅隨迦樓陀夷摩訶劫賓那薄拘羅阿菟樓駄如是等諸大弟子并諸菩薩摩訶薩文殊師利法王子阿逸多菩薩乾陀訶提菩薩常精進菩薩與如是等諸大菩薩及釋提桓因等無量諸天大眾俱

爾時佛告長老舍利佛從是西方過十萬億佛土有世界名曰極樂其土有佛號阿彌陀今現在說法舍利佛彼土何故名為極樂其國衆生無有衆苦但受諸樂故名極樂

舍利佛當於我於五濁惡世行此難事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為一切世間說此難信之法是為甚難佛說此經已舍利佛及諸比丘一切世間天人阿修羅等聞佛

佛說歡喜信受作禮而去

佛說歡喜信受作禮而去

이곳등등이 티대계와 아우리의리보살마하살문수스리범왕자와

아일다보살과 진타하계보살과 상정된보살과 이곳등등이 티대

보살과 및 석계환인등 무량계천대등으로 티브리함비승야비

시니

이곳등등이 티대계와 아우리의리보살마하살문수스리범왕자와

아일다보살과 진타하계보살과 상정된보살과 이곳등등이 티대

보살과 및 석계환인등 무량계천대등으로 티브리함비승야비

시니

이곳등등이 티대계와 아우리의리보살마하살문수스리범왕자와

뜻바에 불리장노 샤리 불비고승 샤된이셔 방으로 부티 심안역 불  
토을 지네 제이시니 일홈이 큰 승쿠나 이 승자 회 부 테 지 시니 일홈  
이 심터라 이 제 현 지 상야 신탄 법 승 시 니라 샤리 불야 적 바 흘 엇 번  
적 초로 일 홈을 쿠나 이라 승 단 고 구 나 라 승 신 이 등 피 업 고 오 디 나  
만 슈 홈 이 구 리 으 로 일 홈 을 쿠 나 이 라 승 니 니라

또 샤리 불야 쿠나 국토에 탈 등 난 쇼 과 탈 중 나 망 과 탈 등 항 슈  
바 이 승 무 라 주 잡 위 오 승 이 이 런 된 처 도 적 나 라 승 일 홈 을 쿠 나  
이 라 승 니 니라

또 샤리 불야 쿠나 국토에 탈 보 지 이 시니 팔 공 티 슈 구 가 운 데 마 두  
승 약 고 못 밋 티 순 히 쉰 금 새 바 히 보 리 고 스 번 제 되 금 은 유 라 과

려로함은야일잇고우호로누각이니시되또호음은누리과러자  
 기적주마로로비법잇고못가온대탄해보미수리박해스든디라  
 청색은청광은고황색은황광은고적색은적광은고백색은백  
 광은야미호은고향갈출시샤리불이구락구퇴이호른공덕이  
 청취호야장엄은야니라

또샤리불이적북처나라히생에히를공누을작은여황남으로  
 바치되여시며주야과시로하늘로안다라화을잇저은호추성이  
 상에앗음으로선각각의쿠으로비한묘화을다마타방심안식북처  
 여공양호을공주게시시로하와본국의이러리법명고두를  
 니니샤리불이구락구퇴이호른공덕이청취호야장엄은야미호라

施主 覺性 法演 法順 金徳心兩

다시버려서 사리불아저나라희생애까지가지기모는너러까지새이시니  
학파공작파인무와사리와가롱과비가와공명의도라이러려한새주  
안까지로화하고아정호소리올내되조리소근과소력과천보리불과  
팔십도불과이것들등의법을취이러기든곳바중심이이소리를들  
머다북취탐추며범탐추며승을탐추느니사리불아비새실로  
이죄보의난배라이러지말라수이엇지유취나라흔삼악도업슬  
시이라사리불아북취나라희우히려악도의일흔이업고은엇지천을  
며실보이실가이러한새꼭이이미타불이법의소리를취유권고취  
하사변화의작호배시니라

사리불아저북취나라희미풍이브리동추면제보항슈와및보라망이

미묘소리를 내니 비친대 비친가지. 푸른 유물 동시. 인. 음. 비. 작. 음. 이.  
 모든 지라. 이 소리를 듣고. 자. 노. 자. 연. 하. 불. 처. 불. 염. 하. 면. 법. 틱. 하. 면. 승. 틱. 하.  
 모든 음을 내니. 사리불이 그 불처나라. 이 모든 공덕이. 성. 취. 하. 야. 장. 엄.  
 하야나라. 사리불이 비드지. 엿. 혀. 호. 호. 직. 불. 처. 음. 엿. 단. 전. 초. 로. 일.  
 흠을. 아. 미. 타. 마. 하. 노. 고. 사. 리. 불. 아. 직. 부. 터. 광. 명. 이. 무. 량. 하. 사. 시. 방.  
 국을. 빛. 최. 사. 드. 마. 린. 배. 엄. 노. 지. 라. 이. 린. 전. 초. 로. 호. 르. 아. 미. 타. 라. 하.  
 나라.

또 사리불이. 직. 부. 처. 슈. 명. 과. 그. 인. 민. 의. 및. 처. 무. 량. 무. 변. 아. 승. 직. 일.  
 시. 구. 리. 무. 로. 일. 흠. 을. 아. 미. 타. 라. 하. 시. 니. 라. 사. 리. 불. 아. 아. 미. 타. 불. 리.  
 불. 처. 되. 어. 썩. 오. 미. 이. 지. 탈. 겁. 이. 시. 니. 라.

施主 黃日幸 現淨

또 샤리블야 적부체 무량 무변 상문 제지 이시니 다 아라한 이라 이 산수  
에 능히 알배 아니요 테 보살 중도 보나 시 이 모든 나라 샤리블야 적부체  
나라 히 이 모든 공 티 이 성 취 하 야 장엄 하 샷느 나라

또 샤리블야 극박 구 토에 등 성 니 나 노 차 노 다 이 아 미 반 티 라 티 노 노 들

비 나 노 아 일 시 라 극 중 에 만 히 일 심 보 체 이 시 니 극 취 심 히 하 이 산 수 에 능 히 알 배

아 날 시 옥 지 가 히 무 량 무 변 아 승 지 로 비 이 르 니 라 샤 리 블 야 중 성 이

득 노 차 노 응 당 이 원 을 발 하 야 적 나 라 히 나 끄 취 원 홀 배 이 라 스 이 어 지 요

이 모든 여러 옥 등 이 단 사 몸 으 로 테 브 리 흥 비 일 취 의 모든 들 서 니 라

샤 리 블 야 가 치 소 선 근 부 티 나 티 노 으 로 췌 티 나 라 히 나 지 못 송 그 췌

나라

사리불야만일후유신남서설티이다이다불일음을뜻집공명호를  
 집미초탄만일후유신남서설티이다이다불일사흔이다만만나흔이  
 나만일맛서어나만일맛서어나만일일세를후음이다이즐립자나  
 면고삼음이명이중흔해의남자이다이다불리여러행유음으로타보  
 리고알프나타이시리니삼음이중흔해의음이전도타이니참이  
 주계이다불구다구도의왕성흔린시사리불야내이니로음을  
 보고크리므로이말을이루라만일호유등성이이리니로음을뜻도  
 절선연승당히원을발하야적나라하나고적흔느니라  
 사리불야내이제이다이다불의가히스기티못흔공덕이니산탄흔공  
 득의동방의행호이족비불과슈미생탄과대슈미불과슈미광불



과. 모든 불과. 이. 그것. 등. 이. 흥. 하. 사. 수. 티. 불. 리. 이. 석. 가. 각. 그. 다. 라. 희. 광.  
장. 설. 상. 을. 내. 사. 삼. 천. 배. 티. 제. 비. 을. 두. 로. 타. 피. 심. 실. 증. 말. 심. 을. 이. 르.  
샤. 디. 디. 의. 등. 중. 심. 이. 맛. 당. 히. 이. 스. 의. 치. 못. 함. 을. 공. 덕. 칭. 찬. 한. 일. 테. 제. 불. 소.  
호. 렴. 정. 을. 신. 흥. 라. 향. 시. 느. 니. 라.

샤. 리. 불. 아. 남. 방. 제. 비. 예. 일. 일. 등. 불. 과. 명. 문. 광. 불. 과. 버. 렴. 견. 불. 과.  
유. 미. 등. 불. 과. 무. 량. 정. 진. 불. 과. 이. 그. 트. 등. 이. 흥. 하. 사. 수. 제. 불. 이. 니. 석.  
가. 각. 그. 다. 라. 희. 광. 장. 설. 상. 을. 내. 여. 삼. 천. 대. 티. 제. 비. 을. 두. 로. 타. 피. 심. 실.  
증. 말. 심. 을. 이. 르. 샤. 디. 디. 의. 중. 심. 이. 맛. 당. 히. 이. 스. 의. 치. 못. 함. 을. 공. 덕. 칭.  
찬. 한. 일. 테. 제. 불. 소. 호. 렴. 정. 을. 신. 흥. 라. 향. 시. 느. 니. 라.

샤. 리. 불. 아. 제. 비. 예. 무. 량. 수. 불. 과. 무. 량. 상. 불. 과. 무. 량. 단. 불. 과.



金貴愛

金剛德

샤리불야. 하방. 제계에. 스즈불과. 영문불과. 영광불과. 달마불과. 법  
당불과. 지법불과. 이즈로. 등의. 흥하시수. 티불이. 니쉬. 각각. 구라.  
히. 광장. 설상. 을내샤. 삼천대. 천제. 을. 두로. 탐. 피. 성. 실. 은. 말.  
심. 을. 일. 으. 샤. 티. 니. 의. 동. 중. 심. 이. 맛. 당. 히. 니. 가. 히. 스. 의. 치. 못. 호. 공. 티.  
칭. 찬. 초. 일. 테. 제. 불. 소. 초. 림. 경. 을. 신. 구. 라. 하. 시. 니. 라.

샤리불야. 상방. 제계에. 범음불과. 슈왕불과. 향상불과. 향광  
불과. 더림. 천. 불. 과. 잡. 식. 보. 화. 영. 신. 불. 과. 사. 라. 슈. 왕. 불. 과. 보. 화.  
티. 불. 과. 천. 일. 제. 의. 불. 과. 여. 슈. 이. 산. 불. 과. 이. 즈. 룬. 등. 이. 흥. 하. 시. 수. 티.  
불. 이. 니. 쉬. 각. 각. 구. 라. 히. 광. 장. 설. 상. 을. 내. 샤. 삼. 천. 대. 천. 제. 을. 후.  
로. 탐. 피. 성. 실. 은. 말. 심. 을. 이. 못. 샤. 티. 니. 의. 동. 중. 심. 이. 맛. 당. 히. 이. 가.

此經의 지 못호호 공티 칭찬호 일체 제불소호 범경을 신하라  
호지호니라

샤리불야 비뻛티 잇티 호호 잇티 전호로 일호를 일티 제불소호  
범경이라 호호 고샤리불야 만일 호유 신남조 신티인아 니경을 뜻  
고바다 진니 호자와 및 제불의 일호를 뜻호 열면 아 여러 신남조  
뻛티인아 다 일체 제불의 호경 호호 배되 여다 안유 다라 삼야 삼요  
리에 물디 나지 아 니호 일시 아 린 전호로 샤리불야 비의 등 아 다 많  
히 내 말과 및 제불의 일호 바를 신하야 바늘 진니카

샤리불야 만일 호유 삼호의 임의 원을 받호 거나 이 제 원을 받호  
거나 당서 예 원을 받호 야 아 미타 불국 의 나 고 제 호 진대 아 여러 사

金應得韓日分 表意正

몸을 순다 안 노 다라 삼약 양 모 리 예 글 다 나 지 아 니 하 아 직 나 라 히 만 일  
임 의 나 기 나 만 일 이 제 나 기 나 만 일 당 니 예 나 리 니 이 런 전 태 로 샤 리 불 아  
이 리 현 남 거 현 티 이 만 일 신 이 노 져 현 대 응 당 히 위 을 발 하 야 티 나 라  
히 나 고 전 초 르 지 니 라

샤 리 불 아 내 이 제 불 의 가 히 스 의 치 못 흘 공 티 칭 찬 흥 그 트 여 제 제  
불 등 도 노 호 나 의 스 의 치 못 흘 공 티 불 칭 찬 하 샤 이 말 심 을 작 하 샤  
의 섭 가 모 니 불 리 능 하 심 히 어 렵 고 희 유 호 일 을 위 하 샤 능 하 샤  
바 국 토 오 탁 약 해 겁 탁 번 탁 증 심 탁 병 탁 등 의 산 옥 다  
라 삼 약 삼 보 리 을 득 하 야 티 증 심 을 위 하 야 이 일 제 제 간 의 식 키  
어 렵 온 법 을 일 은 다 하 지 노 이 카

彌陀經註解

卷四

샤리불야 맛당차 알나. 머오탁 악취에 시러온 실을 칭. 향야 산. 오  
다라. 삼약. 삼보리. 들들. 향야. 일취. 취간을. 위. 향야. 산. 귀. 어러온. 법  
일. 오미. 이. 심. 히. 어. 러. 오. 미. 되. 노. 나. 라.

블리. 이. 형. 을. 일. 스. 지. 매. 샤. 리. 불. 과. 및. 여. 러. 비. 구. 와. 일. 취. 취. 간. 천. 인  
아. 슈. 라. 등. 이. 북. 취. 일. 스. 도. 바. 불. 들. 들. 집. 고. 환. 희. 신. 슈. 향. 야. 테. 을. 작  
하. 고. 가. 나. 라.

므량슈불현왕성정토주

나무아미타야 다타가다야 다지야다 아미니 도바비 아미다  
살담바비 아미니나 비가산적 아미니다 바가난다 가미니  
가가나 지다가에 스바하

玄氏發願文

慶尚左道密陽居姓玄氏佛名本願在家  
適有架梁化主僧請其許施主忽發信心為  
施主其日三更夜自起口誦念佛為淨業寒暑  
之往來晝夜長短惚不知一念恒在念佛他人同  
目咸稱焉在家不居入山居草堂燒香燃臂尤  
勤念佛矣命終時向西坐脫曰會子孫遺囑吾  
言盡聽吾命今日在於我之莊僧法燒身亦有汝等  
行法云 八萬諸經佛祖師言說無數方便也是故  
上中根戒像法堅高則下根末世諸門開開如是故汝  
等欲脫苦則西方中道第一別極樂淨土門求生念佛

三  
教頭每日早朝向西禮佛三拜次十聲念佛或有百聲  
或有千聲念誦者極惡重罪皆是消滅命終時彼佛  
力故今得往生極樂國土有黃金七寶地中亦有九品蓮  
臺無量快樂修皆成佛道 如是別戒末子覺聖  
為母主言說之下信修奉行遺言之故捨財新刻板普勸  
文教用一切老少男女等勸念南無阿彌陀佛以為此  
伽椰山海印寺曰置於大莊經閣耳

本願心行遊

為生木不花教 萬物時成之中 善男子善女人  
有死古木花教 於中不生有地 西生極樂教願



선사발원문 山天古寺無人 朝暮無人

경상좌도 밀양사 단형은 천사소불명은 본원시호

**유**의이실세에 마춤가 새화두등이 시류은 천공거은

마춤시름을 발공사시류은 위공이 그날밤 등삼경의 스스로

염불의 절로나와 정첩을 삼으되 치위와 타위에 가며 우기와 낮

과 밤이 갈며 잘스기로 하지 못하노는 잠지아하고 성으로 염불

호되 일일 일야의 삼만 형씩 하되 초삼연은 염불하며 체

을 보고 처원 초대보체 남자 최을 보지 못하노므로 죽기를 새삼 심

일을 음식은 곤치이 손이 모다의 논 초대 부모님이 산주는 죽기를

정공이 우리 등이나려 흐를 품이 리나 벗겨도 이스리요

선이 현서 돌리니 심수 일에 염불을 독송을 위하타이 삼경의 삶인

텃사인 텃그리 혼듬의 서방으로 이리나 되신지 그 공음의 한가로도 이닐라 깃  
 가의와 공음유슬리한가로 이나기를 현씨듯 그 본세에 음스든 짐가  
 손배 등서히 안자 일로도디, 비춘삼연슬음 불도 그 손촉며 브데  
 밋사지라 말원시 근절 혼고로 서방의 사난아 미타 불이 나타  
 범스른 일 스스로라, 비방의 도승이니 스승스른 절하  
 고 참회하 고유가의 잇지 말며, 출가하야 산의 들러 섬불  
 향견경되 되노이라, 비의조 손견법 저물이 태산스되야 도다하  
 땅이라, 또 혼불도 슬일소로라, 팔만 제경의 불조사의 이르스신  
 말삼이 방벤문이 수업순고로 식의 맛게로 이고 스스로라, 생  
 근파류근혜노, 참선마 화도외 상법으로 드그도 슬만 이하, 여새의  
 외하근 말세예는 팔만법문이, 또 도다 몇개 한고로 이스튼고

로다 희등이 이 괴로 손 세계을 예 희 고 췌 노 사 롱 인 주 셔  
방으로 두 도 제 일 벨 귀 나 세계 이 시 니 그 국 을 나 지 라 쿠  
추 면 섬 블 추 노 자 노 날 로 세 일 주 사 참 의 소 셔 흐 로 상  
추 야 레 블 삼 비 위 추 고 다 시 연 셴 섬 블 추 거 나 추 구  
빅 셴 이 나 추 췌 셴 이 나 섬 추 야 외 소 며 도 락 가 지 라 발  
원 추 노 자 노 죄 악 이 곡 기 담 고 두 추 야 도 키 시 소 멀 추 고 명  
종 승 세 제 브 테 님 원 의 으 로 인 인 개 개 나 모 도 다 곡 나  
으 로 도 라 가 리 라 그 썸 희 보 비 아 스 되 환 금 과 칠 보  
로 썸 희 되 석 고 그 등 의 소 이 시 되 구 프 톨 탄 화 되 다 도 라 가 셔  
고 악 은 영 희 십 고 즐 거 온 낙 은 세 알 남 니 섬 노 고 로 모 도 다  
블 로 안 날 왓 노 이 라

신출리원 서역잇튼날로



비달손은 손을 사름이 안이 와 무로라 간밤의 어섯지  
다슬이 브리본탄고충거슬현서더담후어 나노아지  
못호로라 구러찰고로브테님닌으신말슴을신초야  
드손고로제유면삼월심오일여출가사의조존파체간  
슬천신긔키버리서고안침산반윤등의한가로니얼불  
호더나심칠연을동고박극나지아이호여나모남이서  
노새면삼소월로심각호고단품나들거든구서외므로  
싱각호고등등이우노새소리로한가지벼들사마를  
여셔사베어슬무로레비오십비식위호여일염수로결  
블초더이달은사름이피나타호고훈가지로염불다호키라  
산의들어잡을짓고향도슬며연비도슬며더욱더오구염

河頭 五兩 主

불자티이 명동서예 조손을 외화인용사더내말을 신장  
여들을라내의명이 오슬날의이스매일스로라내  
장소논승법으로화장고니후예지물술내어모언은  
닐용차야일체노소남예등을남무아미타블컨염  
극낙세계로인도후여라나논인지아타블심스로  
미음이즐거이도라가로라 이고튼고로말리자아  
들각형이브모님일스신말슴을신장야바드러히용  
고고로보컨문신키관중야개야산히인사의팔만  
대장경의각의두어추인으로전용용서다

宗師秩

前銜秩

刻手秩

照愿

朗奎

楚仁

管榮

性雨

補信

永元

維善

斗定

照信

顯哲鍊板萬初

持殿

寶行

惣允

雲戒

和信

惣性

贊惠

甫允

性惣

善一

時維邦甫聰

住持

孟震

三綱琢贊允性義官

僧統

法剎

記室

勸業大淑奉玄

乾隆四十一年丙申三月日慶尚道陝川海岳寺開刊

大彌陀懺畧抄要覽普勸念佛文序

詳夫道不遠人教無異致雖萬物之形各異而靈覺之性  
斯同衆生之名各殊而心性之理不異故華嚴經云心佛  
及衆生是三無差別也然而世降聖遠道心遂微故人皆  
不知本有之佛性愛惜浮雲之幻身困五途而歷四生肆  
唯我佛世尊以淨飯王之太子捨萬乘之寶位出家修道  
普濟衆生四十有九年佛滅千載法播中夏大乘教海無  
處不有故古今天下諸國大帝明王及名相尊官兼崇佛  
法如太白樂天東坡山谷有智達士而皆知尊向讚彼陀  
佛自作願文古今緇素名人念佛行道已歸西方而成佛  
者昭載傳錄故極樂居士王子成本儒家名相君子也儒

之百家之書佛之諸經之論通知撮畧作念佛懺罪十三  
文普勸諸人念佛咸皆離苦得樂其功莫少也然文廣意  
深末世諸人少知多疑不能通知亦不知念佛之大有益  
貪著世間之物慾也我以管見畧抄諸經之說以爲念佛  
之文且以諺書解釋使善男善女易通易知摘葉尋根由  
粗入精故經云一念南無阿彌陀佛者能免生死之苦海  
直往西方之極樂皆成佛道亦所謂勸他念佛則自不念  
佛而同生極樂由是普勸諸人念佛咸歸西方淨土然所  
述管見皆是藜藿之類飽人不堪食以俟絕陳之流敢竭  
鄙誠恭頌短引

康熙甲申春慶尚左道體泉龍門寺清虛後裔明衍集



阿彌陀佛因行

過去久遠劫中國名妙喜王名憍尸迦祖清泰  
國王父月上轉輪王母殊勝妙顏氏生三子長  
曰月明次曰憍尸迦三曰帝衆時有一佛號世  
自在憍尸迦棄國出家名法藏比丘於佛前  
初發四十八願往於西方極樂世界大慈大悲  
阿彌陀佛前身成佛以來於今十劫接引衆生此  
世界各別有緣一切萬民四生六趣衆生等皆是  
阿彌陀佛名號或聞或稱者皆得往生極樂世  
界九品蓮臺

阿彌陀佛四十八願故願願度衆生

아미타불인행

파계검중의한국일흠은묘희왕명은피서개요중은청태  
 국왕이요부노왕상전운왕니요모은수승묘안신삼즈을니호  
 되중조피시개하피시개치국초다가국을블리고출가하이중니  
 되아일흠니법쟁비구라천업공부흔싸에스십팔원을세  
 오고극낙으로가서메즈메비아미타불미되다성블후안지  
 열집니신미라중성음제도하아이세계에각별호인연  
 니이서일취만민수성육취중성등이다아미타불명  
 향은누듯고후잇곳느사름은다극낙세계구름연  
 피의왕성향느니라

아미타불의마초여플원인고로원마쟁중성제동느니라

王卽返魂傳

此王卽者姓王名思机吉州人也年五十七其妻  
宋氏先亡後十一年中夜三更扣窓云卽宿耶不  
宿耶卽云阿誰也卽君故妻宋氏也亦傳要音以  
告之來也

이와랑은성은왕의오일동음은수워니길주사람이라나  
히신닐곱해뒤저승서몬져주근연흔희만애밤두사들  
써애창은러닐오뒤랑아찬야아니찬야양안과랑이  
닐은뒤고우후머라오의고쳐송씨러니종오로은보들

잠산년하야니르라엿노라

卽驚恠云何要事也宋氏曰我亡後上一年間  
其罪而未畢待君已決

탕이름나피이일이름스중은일고송씨로오  
뒤내주근후일하히로뒤그죄를무러미다아니고그뒤를기  
드려사결단하리라

前日閻王相論久矣來朝捉君差使五鬼來君宜  
家中彌陀幘高掛西壁君東坐向西念彌陀佛

아리염왕이서로의노호미오만디라온은아속이그뒤자불처소

다섯귀신이오다니집가온뒤미타팅음셔벽에노필  
공덕동으로안셔를향하야아미불은님후라

卽云冥官投吾何事宋氏云宅北隣居安老宿每  
日早晨向西五十拜每月望日念彌佛萬篇爲業  
랑이닐오뒤명판이날잡기노고스일고송씨닐오뒤우  
리집북벽이오스의사노안노슈이미일이문새배셔를향  
하야신변철후고미월보로매미타불념후기를일만편으  
로업음후하거늘

君與我每常誹謗以此投囚先問待君問了我等

三傳

三傳

必然墮於地獄永無出期言訖宋氏卽還

그뒤와나와로미상어비방후터디일로자바가도와몬져문  
고뒤를기르려삼문기름기초리니우리들히필연히뒤에  
비리디면기리날기약이엄스리루말무초맹씨즉젼라니날  
於是卽明朝如其所告至誠念佛時忽然五鬼來  
立庭中良久回看審諦觀察先禮彌陀幘次拜王  
卽卽大驚下座答拜

이에랑이보리노아참애그말다이후야지성님불후뒤니초기  
몬뒤오귀시뵈다가은뒤와셔셔오래도라보아슬퍼져셔히관찰

후다가본적미타팅을비고버고왕망을정동안라이크  
기늘나좌의려다남후야정고대

飛使云吾等冥曹承命捉君而來今君清淨道場  
端坐勤念彌陀吾等雖敬無已難避閻王之命雖  
不如勅非不捉去伏請行李

귀시닐우뒤우립동운명조제병을바닷는뒤라구뒤을사보  
라와다니이제구뒤노랑은묘호고단정히안자브스려내미  
타을틈후니우립동히비록공경을마디아니후나염수의  
명을정공어렵거나외비록트명다이아니나아기자바가리

물론리니스브리칭호니형니호쇼셔

第三鬼曰閻王下令彼王卽嚴縛將來不如勅則  
王之所嗔吾等可被也

테삼귀르우뒤염왕이랑을리우사뒤터왕랑을염히  
미여마정이라하시니턱팅다아니면왕의진심을우르  
이가히니브리르다

餘鬼曰若我等被多勅不修善道故今受鬼報未  
脫寧受死罪不敢以念佛者從令縛之

나모귀시르우뒤우리들히한턱령을니블씨언팅션



도물다스디몬출시구면코로이제귀보물몬비스니출히주을  
죄를슈출디인형감히형불후는사물을네은조차  
수물출디리

第一鬼告王卽曰雖有犯罪如山必入地獄吾等  
所見善美閻王必還人道君不敢悲憫君若生極  
樂不忘吾等鬼使

테일귀시왕랑디리닐리리우티비록죄범호미산동  
야반디시디우애들로미시나우리닐히분바루염왕석  
대슬오면반디시인도애도물오리니구디감히슬허말소

서그디만일구라의나쁜우리의친구를사다마르소서  
回跪示偈曰 인간야라서게을보여르오디

我作冥間使 今已百千劫 不見念佛人

墮於惡道中 내명간애사자되연디 이제비천겁

이로디부러짐은사름이알도록비러디물부디물게라

君若生蓮花國念吾輩脫鬼報

그디다기쁜화국의나쁜우림을부러보음벗게소서

已然後到冥曹閻王怒勅使曰急捉縛來如何遲

晚也鬼使具陳所見王起座立云善哉王即也速

階上 그리저장주인명종의가니임왕이투소린동야  
공우지선미자화미영이라하니엇제지우복귀시보턴바  
물조주되니왕이좌의니러서서닐오티도한설와왕이  
여셀니심에오루쇼셔

十王齊拜曰夫妻常曾誹謗安老宿念佛事先因  
宋氏當問王卽墮於惡道今差極惡鬼使鬼使所  
見聞之君改心懺悔勤修念佛有何罪乎

열왕이부다전하야물오티부체미상애일주안노슈의  
림물고간일은비방하디니송씨을모저가도고왕랑

다려앗다양정말은천안도애뵈면다리라하여이제지극히모친  
귀친을다러잇다귀수의문바를다러다귀친을모친  
회하삼다러다림불을다러잇던죄이시리오  
王曰偈曰 왕이인하여게로다오더

西方主彌陀佛 此娑婆別有緣

若不一念彼佛 冥曹猛使難降

서방주미타불은이사바의각별호인연이시니하다가  
호공조티져부려를아니림하면명조의용망호수찰  
항부하하오려우니라

夫妻還返八問遺命三十年年加六十歲勤修精  
進念彌陀佛速往彼刹吾等十王並到西方爲送  
부처승인간이도로하야가틴명이심호호히어을틴을어  
순히은티하야브스런이다가정진하야미부를을명하  
야설리티세게에가시리니우리트위왕도다셔방어리리  
기호소서위하야보내시다

王命曹府崔判官曰王卽造排道場懇切念佛先  
犯無間罪報今已散盡唯念佛功德夫妻同返入  
間偕老同住念佛宋氏命終年久皮骨散失屬魂

何處 왕의 승무직 관 관음명왕이 권이왕이 광  
을 버리고 전히 탐을 하니 문세범 천부나 천부의 제이  
의 후로 임고 후로 탐을 공탐이 후로 탐을 천부인간  
이도라 보내 여한이 글러 후로 탐이 무려 부처를 탐케 후리니  
승시명고 초하 후래니 가족 후로 탐이 후로 탐을 탐 탐 탐 탐 탐  
判官聽王命以闍王旨回拜王即夫妻奏王月氏  
國翁主時命二十一歲命限已盡故魂今生於夜  
摩天其體專在宋氏之魂托於公主形還生可宜  
판관이 왕의 명을 들리엄왕은 드로 왕이라서 절후부

와쳐을왕씨슬오디원지국웅취이제명이스름호지  
리라명호이임의다호고로훈이이제야마현의난지라  
그몸이오오라이시니송씨의훈을웅취얼로공의의탁  
하야도로나게호미어루맛당하니이다하야날

閻王歡喜曰卽君夫妻不忘此願速生西方君則  
諦聽君宅止居安老宿不敢誹謗受此身以來常  
尊西方曰此功故諸佛諸天常護持也

염왕이깃거공오디랑군부쳐이원을아니니즈면서방  
의셜리나시리니그디즈셔히드르란그디집부의사노안로

속을 감히 비방 말디어다 이 몸 슈하야 오미사애셔 방  
을 존히 하디 이 공덕을 본 들 식 그러므로 제 불 제 현이  
이상 어호디 흠디니라

君則常供養如父母請君吾等普信傳達安老宿  
王卽應諾

그 뒤 노사례공양호문 부모 큰 티 하사 구 뒤 서 처 호 하  
우리 들 음 신 음 안 노 슈 서 천 하 야 아 뒤 소 서 하 야 노 와 황  
이 뒤 답 호 야 하 랑 호 대

閻王向老宿拜曰道體如何日新堅固隔三年三



月初一日西方教主持紫金蓮花座迎君西方上品往生言訖還生本家家人欲葬時

염왕이노수극을향하야저르고글르오뒤도테엇티호  
고날로새로견고히하시니세히스이잇다가삼일초  
호로날이면셔방포쥐즈금런셀좌을가지고그티을  
마져셔방쇼음애가나게하티라호고말르며태매도로  
본가애오니집사룸미영장호고저음애

還生偈曰 도로나게로니르오뒤

滿堂妻子與財珍 受苦當時不代身

一念彌陀消罪報 還生延命更修真

지비고후고앗는 처주와지름보비와슈고고호호시절  
어느이모모르디모호호로다일렘미타사죄보은스다  
도로나와명을모디다시진을맛글로다

宋氏托公主身還生王與夫人歡喜時公主生身  
具陳事王嘆之詔王即日朕曾不見此事所謂  
夢中之瑞

송씨옹주외모미의탁후야도로나니왕와부인이기귀  
호호제옹주싱신이우희이름고초피니왕이슬하호고

化蓮地念

왕라을소저하야공우되나본참산도이런이문부디을  
하야시니니은삼등의상세로다

王卽卽奏言宋氏十一年間不思餘親唯守前信  
乃遇重親歡喜而退延壽一百四十七歲後同生  
極樂也

왕랑이즈 저슬와닐우되송씨영공운희스이에다르관  
을사랑아니하공우적아리신을가져서이애다시친호  
문말날와하공고기거을러가목스르일빅마인드남  
하은미구하야영공부랑가이나다

彼王即於此念佛雖不信輕笑以其見聞故終成  
往生之益况見聞而不輕笑見聞而隨喜者乎故  
附此傳助現念佛利澤之廣

化主木淨見聞

化主比立快成

施主宋泰榮

디광영등연설티다나이왕나모바가바에비사사  
로비유리바자바아라아아다라아다하아라테삼약삼  
못다아다아타음비사사바자음비사사삼무아아스

동방불진

연

바하

五等寺候